

H-Premium Family



06 HERITAGE

36 NATURE

70 MODERN PREMIUM

<H-Premium Family> 매거진과
고객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먼 길도 함께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걷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미소가 깃듭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객 여러분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들 때 손 내밀며
함께 한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H-Premium Family> 매거진이 들려드리는
즐겁고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사람과 삶, 내일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꿈과
고객 여러분을 향한 진심의 목소리 전해지도록.



<머나먼 길> 이기숙, 캔버스에 한지, 흙과 채색, 150x120cm, 2008

2017년에도 고객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앞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열정적인 계절을 제대로 즐겨보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리쬐는 햇살을 피하지 않으며
묵묵히 고객의 마음속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현대자동차가 진심을 다해 준비한 프리미엄 공연,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
즐겁고 이색적인 테마여행 프로그램이 고객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일상이 보다
즐겁고 특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고객 여러분께, 2017년 <H-Premium Family> 매거진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자연, 현대자동차 고객을 위한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두루 담고 있는
<H-Premium Family> 매거진을 통해 여러분 모두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카 라이프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H-Premium Family>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뜨겁고 깊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심을 늘 기억하며
고객의 곁에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광국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 이광국

CONTENTS

H-PREMIUM
FAMILY
MAGAZINE
2017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인

이광국

기획·디자인

아이퍼블릭스

TEL. 02-3446-6362

인쇄

세화인쇄소

TEL. 02-461-3327

발행처

현대자동차㈜ CRM팀

홈페이지 BLUEmembers.hyundai.com

06



36

HERITAGE

08 NOBLESSE TOUR

옛 선비의 정신, 발자취를 찾아 떠나다

13 HERITAGE INFORMATION

전국의 대표 민속마을

14 MUSIC

소리를 빛는 사람, 악당이반 김영일

18 MUSEUM

산수화 대가의 예술혼 담은 그릇, 의재미술관

20 MUSEUM & GALLERY INFORMATION

예술가 이름이 붙은 전국의 미술관/갤러리

22 ARTISAN & ARTISAN

청송백자장 고만경 & 옷칠장 이의식

28 LOCAL LUXURY

김성필 사장이 구워낸 대한민국 명품 백탄

32 OWNER

쏘나타 오너 아버지 김성환, 아들 김대용 부자

NATURE

38 ECO TOUR

원시자연, 그 너르고 넉넉한 품에 안기다

46 ART FROM NATURE

수화 김환기의 예술세계

52 NATURE INFORMATION

신안에서 만나는 남도의 맛과 멋

54 TREE

애뜻한 사연, 전설 품고 자란 네 그루 나무 이야기



58 TASTE 1

대 이어 40년, 강원도의 맛 <주천목집>



62 TASTE 2

해녀 물질로 건져 올린 남해 바다의 싱싱함



66 OWNER

아이오닉 일렉트릭 오너 강수란 고객



MODERN PREMIUM

72 MINOR LUXURY

일상에 더하는 작은 사치, 마이너 럭셔리

80 DRIVING ITEM

편안하게 심플하게, 드라이빙 슈즈



82 MOVIE & WINE

영화 <사이드웨이>와 함께하는
산타 바바라 와이너리 투어

86 OWNER

맥스크루즈 오너 김주일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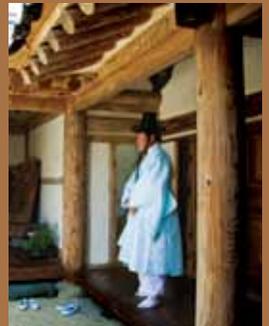
90 프로그램 소개

- 무비 나이트
- 프리미엄 초청공연
- 오토캠핑/글램핑
- 대규모 캠핑 페스티벌
- 골프 갤러리 참관 및 투어 프로그램



지금, 현대자동차와 함께 역사와 전통의 숨결 찾아 떠나는
HERITAGE TOUR를 시작합니다.

역사가 지루하다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전통의 명맥을
이으며 오늘날 새로운
코리안 스타일을
만들어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H-Premium Family>
매거진과 더불어
온고지신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 떠나보시지요.



자연을 가까이하며 호연지기를 키우고, 고요히 마음을 갈고닦기를 즐겼던 우리 선조들.
바쁜 도시의 일상을 살다 보면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고 자신을 돌아보던 옛 양반, 선비들의 삶이
새삼 그리워진다. 뒷집 지고 여유로이 거닐던 선조들의 정신과 뜻을 찾아 떠나보자.

옛 선비의 정신, 발자취를 찾아 떠나다

경주 양동마을-담양 소쇄원-울진 해월헌



i

담양 소쇄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061-380-2810~2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재 담당)

www.soswaewon.co.kr





1



2

옛 기와집의 고즈넉한 여유와 멋, 양동마을

전통 민속마을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더불어 큰 규모를 가진 곳이 바로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 자리한 양동마을이다.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양동마을이 세상의 주목을 받은 계기는 1992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이곳을 방문하면서이다. 건물만큼이나 오랜 생활문화를 간직해온 양동마을은 1984년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경주 북쪽의 설창산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이곳은 경주 손 씨와 여강 이 씨 종가가 500여 년 동안 전통을 잇고 있는 유서 깊은 반촌이다. 수많은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포함해 고색창연한 54곳의 옛 기와집과 이를 둘러싼 110여 호의 초가로 이루어져 있다. 양반가는 높은 지대에 자리해 마을을 내려다보고 하인들의 집이 양반 가옥을 에워싸는 형태이다. 집과 집 사이로 난 좁고 굽은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번잡한 고민들은 사라지고 바람이 머릿결을 어루만지고 새들이 인사를 건넨다.

옛집이 많지만 양동마을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한다. 유교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전통 한옥 민박에서 선비들의 일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말이나 방학이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마을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모처럼 마을이 북적인다. 심수정별채, 매산고택, 선원덕, 아랫마을 진사댁 등 이름도 격조 있는 한옥에 머물며 선비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시 한 수 읊조리는 풍류와 여유를 되찾게 된다.

조선 선비들이 사랑한 정원, 소쇄원

대나무의 고장 전라남도 담양에는 옛 선비들이 사랑한 정원, 소쇄원이 있다. 460여 년 전 지은 소쇄원은 민간이 만든 정원 중 우리나라 전통 정원 양식이 가장 잘 표현된 곳으로 꼽힌다. 조선 중종 때, 스승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유배되고 결국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세속의 뜻을 버리고 낙향한 당대의 학자, 양산보가 팔을 걷고 지었다. 양산보는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애지중지 보살핀 소쇄원을 절대로 팔지 말라’ 했고 그 뜻을 받들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정성으로 가꾸며 지켜가고 있다. 사람의 손이 닿았다고는 하나

자연의 형태를 거스르지 않았고 투박하고 낮은 흙돌담은 자연과 집의 경계를 무색하게 한다. 담을 쌓으려 물길을 막는 현대인들이 차마 본받기 쉽지 않은 공존과 배려의 건축이다. 담장을 두르고 꽃나무를 심는 대신 자연의 풍광 전체를 정원으로 끌어안은 이른바 차경의 호연지기가 또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절경이 펼쳐지는 소쇄원인지라 당대의 문인들이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남겼다. 실제 소쇄원 내에 자리한 제월당에는 송순, 정철, 고경명 등이 읊은 시들이 편액으로 걸려 있다. 달빛과 벗하며 자연의 호방함을 배우는 소쇄원이야말로 선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다.

1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 대표 민속마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

당대 문인들이 소쇄원의 풍경에 감동해 지은 시들이 백백이 걸려 있다.



충과 효의 뿌리가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는 해월헌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기슭에 울진의 오래된 집, 해월헌이 자리하고 있다. 집을 지키는 주인공은 평해 황 씨 13대 종손, 황의석 어른이다. 온화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차를 내어주는 이정숙 종부와 더불어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맞이하는 봉제사 접빈객의 일생을 살아왔다. 해월헌과 종손 부부의 이야기가 새삼 다시 조명된 것은 2012년 종손의 어머니 이차야 여사가 102수로 세상을 떠나신 후이다. 거친 삼베옷을 입고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빈소에 식사를 올리며 3년 상을 치렀다. 후손으로서 예를 다하고 나라에는 충을 다하는 울진의 대표 명문가다운 일이다.

평해 황 씨 가문과 해월헌의 이름을 드높인 이는 조선조 퇴계 이황 선생의 문하인 학봉 김성일의 제자이자 당대의 문장가 황여일이다. 타고난 선비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 출세 대신 고향에서 학문에 정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어이 관직에 나아가게 되자 “만리 푸른 바다 흰 갈매기, 우연히 인간 세상에 잘못 떨어졌구나” 탄식하면서도 임진왜란 중에 큰 공을 세우며 자신의 할 바를 완수했다. 한편 황여일의 10대손 황만영 선생은 지역에 학교를 세워 인재를 키우는 한편, 국권 상실 후에는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계속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기도 했다.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며 효이고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면 충이다. 효와 충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는 참 선비의 집, 해월헌에서 역사책보다 깊은 감동과 배움을 얻는다.

해월헌은 조선조 당대의 문장가 황여일, 독립운동가 황만영을 배출한 평해 황 씨의 세거지다. 현재는 13대 종손 황의석 어른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전통과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다! 전국의 대표 민속마을



1 직접 살아보는 조선 /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의 조선시대 마을은 각 지방에서 이견 및 복원한 실물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사계절 변화에 따라 생활 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전통문화 체험으로는 하회탈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전통혼례, 선비문화 체험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문의 031-288-0000
홈페이지 www.koreanfolk.co.kr



2 반촌 마을의 전통을 엿보다 / 양동마을

양동마을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그 명맥을 인정받고 있다. 떡메치기, 서예 체험, 숙박 체험, 난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아름다운 우리 예절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93
문의 054-762-2630
홈페이지 www.yangdongvillage.com



3 제주 전통문화의 궁지 / 성읍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 옛 민가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성읍민속마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는 잊혀져 가는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제주민요 체험, 오메기술 체험, 고소리술 체험 등의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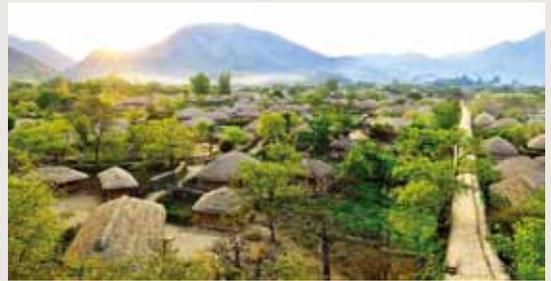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문의 064-710-6797
홈페이지 seongeup.seogwipo.go.kr



4 미와 전통의 역사마을을 만나다 / 안동하회마을

안동하회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씨족마을이다. 전통혼례 체험, 짚공예장 체험, 가훈 쓰기, 탈인형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증가길 2-1
문의 054-853-0109
홈페이지 www.hahoe.or.kr



5 살아 숨쉬는 낙안성 / 낙안읍성민속마을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역사와 민속, 생태가 어우러진 민속마을이다.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및 CNN 선정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두부/메주 체험, 대장간 체험, 길쌈 체험, 큰쌔/빨래 체험 등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주소 전남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문의 061-749-8831
홈페이지 www.suncheon.go.kr/nagan

소리를 빛는 사람, 악당이반 김영일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음반사, 악당이반의 음반은 뭔가 다르다. 바람 스치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연주자와 관객들의 호흡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옥을 스튜디오 삼아서 연주하는 당시의 소리들이 그대로 담긴 음반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한옥 뒷마루에 앉아 있는 듯, 생생한 감동이 밀려온다.



우리 음악을 담은 최고의 스튜디오, 한옥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음반사 악당이반의 김영일 대표. 지금까지 100여 종의 음반을 제작했고, 녹음한 콘텐츠가 2,000개가 넘을 정도로 국악계에선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김 대표가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두 귀로 생생히 우리 소리의 매력을 ‘득음’하고 나서다. 김 대표의 귀를 열어준 이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재기 넘치는 소리꾼 채수정 명창이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고백한다. “기존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지요. 문화적, 학문적 허영심이 모두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이 싹튼 거라 할 수 있겠네요.”

결국 그는 우리 소리를 담은 음반 제작사를 직접 만들어 명창, 명곡을 두루 담은 ‘우리 음악 살리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우리 음악은 시장도, 고객도 제대로 없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악당이반의 앨범은 잠깐 음반가게 진열대에 오른 후, 창고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2011년 제작한 <정가악회풍류Ⅲ 가곡>이 이듬해인 2012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며 악당이반의 앨범이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김 대표의 눈물과 먼지가 뒤엉킨 악당이반의 명반들 중에는 송소고택에서 직접 녹음한 음반도 포함되어 있다. 2006년 세상에 선보인 <정가악회풍류1, 줄풍류>가 바로 그 작품이다. 송소고택은 김 대표가 추구하는 ‘소리 그릇’에 가장 가까운 공간이었다. 국악은 그 소리가 원래 연주되고 향유되던 공간인 한옥에서 녹음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국악을 즐기고 또 녹음하기에 가장 극적인 장소가 바로 한옥입니다. 이젠 우리가 한옥에 숨결을 불어넣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옥이라고 다 같은 소리를 담아내는 건 아니다. 한옥은 기후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훗한기가 긴 북쪽은 ‘ㅁ자’, 중부지방은 ‘ㄷ자’. 훗서기가 긴 남부지방은 ‘—자’로 이루어져 있다. 집의 형태에 따라 담아내는 소리의 색과 무게도 응당 달라진다. 그러니 집의 형태를 살피는 동시에 어떤 음악을 연주할 것인가, 이 집은 어떤 음악을 연주해야 소리도 살고 집도 살 것인가를 짐작해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다. 결국 경북 청

송에 자리한 명문가 송소고택에서 정가악회의 줄풍류, 즉 현악이 중심이 되는 합주를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좋은 소리를 담아낼 그릇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집을 섭외할 생각에 부담이 밀려왔다. 한옥에서 국악을 연주한다 하면 지역 어른들에게 ‘니나노’라 불리는 기생놀음으로 치부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택음악회와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과 널리 함께 나누는 송소’의 가치를 중시하던 심재오 종손은 흔쾌히 대문을 열어주었고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녹음이 진행되었다.

악당이반의 음반은 한옥에서 직접 녹음해 연주하는 물론, 바람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뛰어난 현장감을 전한다.



한옥, 맑고 청아한 '퓨어 사운드'를 품다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기도 한다. 김 대표는 틀에 맞춘 음반과 서양식 무대, 소리를 변질시키는 마이크가 국악의 내용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2012년 가을 초은당에서 레코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히 문풍지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함께 녹음되었지요. 이걸 소음이 아닙니다. 그걸 음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과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음악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겠지요.”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 맞춘 듯 딱 떨어지는 그릇이 음식의 정갈한 맛을 돋우듯, 한옥은 국악을 보다 아름답게 담아내는 최고의 소리 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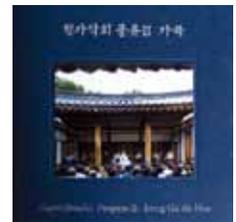
우리 소리와 더불어 새로운 꿈을 나누다

“소리는 담지 않으면 사라진다. 아무리 좋은 공연에 가도 그 날 한 번 연주된 후 사라져버리면 그만이다. 이왕 소리를 담으려면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 담고 싶다.”

최근 이런 김영일 대표의 소신에 걸맞은 공간이 생겼다. 파주출판도시에 자리한 '스튜디오 파주'다. 최고의 소리를 위한 최상의 설비는 물론, 그동안 김영일 대표가 모아온 다양한 마이크와 각종 음향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 파주가 빛어낼 격이 다른 소리가 새삼 기대된다. 더불어 올해 1월,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으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공정 음원 플랫폼 '오대오(www.odaeo.com)'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의 전통음원 기반 고음질 음원 사이트 오대오는, 창작자와 유통사가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분배 구조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악당이반은 오대오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제작한 1,400여 개의 국악 음원은 물론, 향후 클래식, 월드뮤직 등으로 유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우리 소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서 시작한 악당이반의 도전은 이제 이처럼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김영일 대표의 추천 음반



세계 최초 유네스코 지정 유·무형유산 음반

<정가악회 풍류Ⅲ 가곡>

2000년 창단되어 줄풍류와 가곡,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가악회의 음반 <정가악회 풍류Ⅲ 가곡>. 연주 장소인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과 수록곡인 '여창가곡'은 각각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 최초로 공연 장소와 음악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SACD 음반이다. 2012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수화가로 손꼽히는 의재 허백련. 의재미술관은 바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고자 한 의재의 열정과 예술혼을 담아낸 공간이다.
무등산 자락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미술관을 찾아가 보았다.

산수화 대가의 예술혼 담은 그릇, 의재미술관



광주 무등산 입구에는 쪽 뽕은 길이 있다. 바로 의재 선생이 30년을 오갔다는 증심사 계곡의 등산로다. 길을 걷다 왼편에 두 갈래로 가지를 뿔어 올린 묵은 팽나무가 보이는데 바로 의재미술관 입구다. 그곳을 지나면 무등산 자락 우거진 숲 속에 폭 안긴 듯한 형상을 한 의재미술관이 보인다. 산세에 묻혀 산과 삶을 압도하지 않으며 의재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이곳은 2001년 ‘한국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통유리로 설계된 벽면이 내다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섯 폭짜리 산수 병풍 같다. 2층에는 그림 병풍이, 건물 외부는 무등산의 그림자 병풍이 둘러치고 있으니 어느 것이 건물이고, 어느 것이 풍경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건물 구석구석



에 통유리창을 내어 무등산 이곳저곳을 담아낸 풍경은 의재 선생의 산수화와 다를 바 없다. 의재미술관은 의재 허백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미술관이다. 1891년 진도에서 태어난 의재 허백련 선생은 20세기 우리나라 산수화의 대가로 꼽힌다. 무등산 자락 춘설헌에 기거하며 수많은 명작을 완성했고 시서화 동호인의 모임인 연진회를 조직해 광주가 예향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그는 단순히 그림에만 몰두한 화가는 아니었다. 해방 후 피폐된 농촌을 중흥하기 위해 농업기술 학교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가 하면 애천과 애토, 애인이라는 삼애사상을 제창하기도 했다. 무등산 증심사 계곡에 위치한 의재미술관 뒤편으로는 무등산 춘설 녹차밭이 펼쳐진다. 그리고 미술관 앞쪽에는 의재 선생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춘설헌과 의재묘소가 있다. 화가였던 의재 선생이 사랑한 자연과 차 그리고 사람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의재미술관

광주시 동구 증심사길 155

062-222-3040

www.ujam.org

예술가 이름이 붙은 전국의 미술관/갤러리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정신을 찾아서

예술가는 떠나도 작품은 그 자리에 남아 우리를 기다린다. 예술가들의 사연과 작은 벽에 걸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를 미술관과 갤러리로 이끌고 있다. 작품의 아름다움과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국의 미술관과 갤러리를 소개한다.



1 박수근 미술관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박수근 화백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서민화가이다. 이름 없고 가난한 서민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는 데 일생을 바친 박수근. 그의 생가에 건립된 박수근 미술관은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혼을 기리고 있다.

주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문의 033-480-2655

4 환기 미술관

환기 미술관은 수화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정리, 소개하여 작가의 생과 작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인 김향안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환기 미술관은 미술관의 생명은 무엇보다 그곳에 담긴 내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생동감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 40길 33
문의 02-391-7701
홈페이지 www.whankimuseum.org

7 운보 미술관 (김기창)

청각장애를 가졌지만 강한 정신과 의지로 장애를 극복해 거장으로 인정받은 운보 김기창 화백. 운보 미술관에서는 김기창 화백의 독창적인 예술세계와 그의 가족들의 작품까지 전시되어 있어, 김기창 화백의 삶은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형동2길 92-41
문의 043-213-0570
홈페이지 woonbo.kr

2 이중섭 미술관

불운한 시대의 천재화가로 일컬어지는 대항 이중섭 화백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과 넉넉한 이 고장 인심을 소재로 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중섭 미술관에서는 그의 높은 창작 열의와 불멸의 예술혼을 후대에 기리고, 제주를 찾는 이들이 그의 예술적 발자취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문의 064-760-3567
홈페이지 culture.seogwipo.go.kr/jslee

5 이응노 미술관

동양화가로 시작해 문자추상이라는 독특한 경지를 개척한 이응노 화백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화가이다. 이응노 미술관은 그의 삶과 예술활동을 재조명하고, 그의 예술세계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설립되었다.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157
문의 042-611-9800
홈페이지 www.leeunghnomuseum.or.kr

8 전혁림 미술관

고향 통영과 부산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했으며, 독특한 색채와 풍경을 이루는 작품으로 색채의 마술사, 바다의 화가로 불리는 전혁림 화백. 전혁림 미술관은 화백이 30년 가까이 생활하던 집을 헐고 새로운 창조외 공간으로 신축한 건물에서 다양한 작품 세계를 알리고 있다.

주소 경남 통영시 봉수1길 10
문의 055-645-7349
홈페이지 www.jeonhyucklim.org

3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옛 삼달초등학교를 직접 손질해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사진작가 김영갑의 열정과 제주도의 고요와 평화를 담은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속살이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문의 064-784-9907
홈페이지 www.dumoak.co.kr

6 백남준 아트센터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은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랐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며 동시에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의 실천과 활동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문의 031-201-8500
홈페이지 nijp.ggc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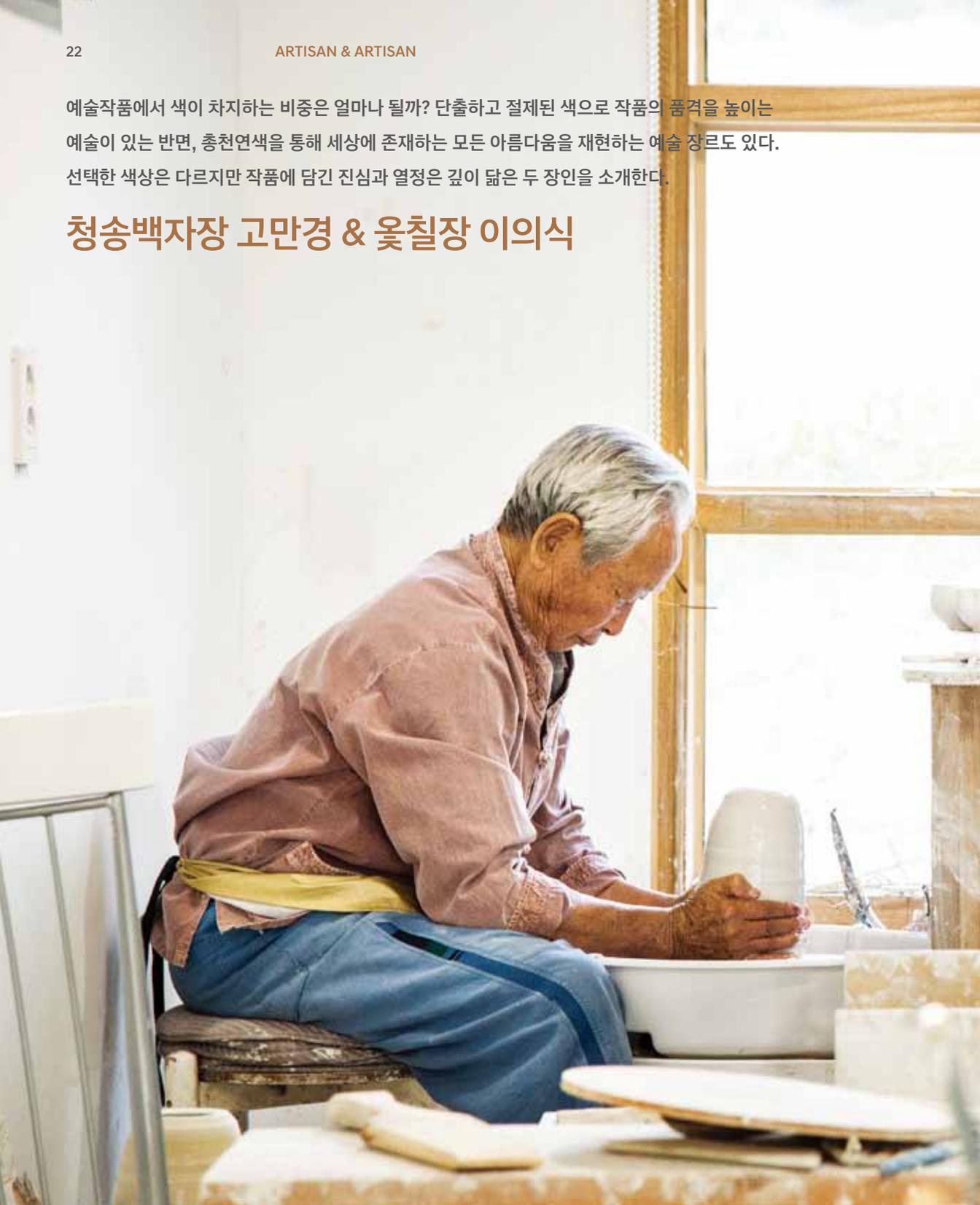
9 우제길 미술관

빛의 화가로 불리는 우제길이 광주 지역의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미술관이다. 우제길 미술관은 작가의 삶과 작업과정,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등작가 우제길의 작품세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소 광주시 동구 의재로 140-6
문의 062-224-6601
홈페이지 www.wooart.co.kr

예술작품에서 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단출하고 절제된 색으로 작품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이 있는 반면, 총천연색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예술 장르도 있다. 선택한 색상은 다르지만 작품에 담긴 진심과 열정은 깊이 닮은 두 장인을 소개한다.

청송백자장 고만경 & 옷칠장 이의식



청송백자, 흰옷 입고 선하게 살아가는 민초 같은 그릇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자락에 청송백자 전수장이 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청송백자의 명맥을 잇는 이는 고만경 장인이다. 얇고 가벼운 데 다 눈 내린 듯 은은한 광택을 뽐내는 청송백자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지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그릇이자 예술작품이다. 투명에 가까운 흰색과 얇고 가벼운 그릇의 비밀은 원료에 있다. 보통 자기는 흙을 재료로 하는 반면 청송백자는 전수장이 자리한 법수골 산의 돌을 빻아서 쓴다. 그래서 진흙을 쓰는 그릇에 비해 빚기는 쉽지 않지만 단단하고 불에 견디는 힘이 좋아 초벌구이만으로 쓰임새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고운 곡선의 외양에 빛깔까지 맑고 투명한 청송백자는 관상용 작품으로 제격이다. 하지만 정작 평생 백자를 빚어온 고만경 장인은 손사래를 친다.

그릇이라는 게 밥 먹고 물 마시는 데 쓰는 도구이지 감상하는 작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희고 곱다고 작품이라 여기면 안 되지.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그저 고상하게 받드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야. 거기 밥 담아 먹고 물 담아 마셔야 진짜 짜배기 청송백자라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이 그릇 한번 들어봐. 가볍지? 보기에 좋고 나르기 편하고 밥 담으면 밥맛 살아나니 이게 진짜 쓸모 있는 살림살이 아닌가 말이지.”

그러면서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레 앞에 앉아 그릇을 빚는 고만경 장인. 그릇에 색을 더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묵묵히 제 몫을 하라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다.



청송백자의 은은한
빛깔과 정갈한 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고만경 장인의
달항아리. 투박한
듯 고운 선이 시선을
끈다.



이의식 옷칠장의
작품은 다채롭고
깊은 색감과 화려한
문양이 특징이다.
수많은 손길로 완성한
진정한 땀과 노력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색의 비밀, 옷칠

열다섯 살부터 옷칠 기술을 배운 이의식 옷칠장. 1998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그의 작품은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특히 유명하다. 종이가 아닌 그릇이나 투박한 생활도구도 그의 손길이 닿으면 순식간에 아름다운 예술품이 된다.

이의식 장인이 옷칠장인으로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향 전주로 내려와 가까운 공예인 여덟 명과 더불어 행촌칠예공방을 차리면서부터다. 작은 공방이지만 이곳에서 만들어낸 작품은 예술의 고향, 전주의 이름을 걸고 대도시는 물론, 일본과 미국 등지로 수출된다. 옷칠 중에서도 건칠, 건칠 작품 중에서도 채화를 입힌 장인의 작품은 40년 옷칠 인생이 빚어낸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칠 기법은 옷칠 중에서도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제작하기에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일반 옷칠기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최소 반년인데 뼈대 없이 옷칠만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건칠은 제작 기간을 헤아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반 옷칠기를 만들 때에는 백골을 짠 후, 옷칠을 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천연 생칠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들기름과 송진기름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제 과정이지만 이의식 장인은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려도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고집이다.

건칠은 백골이 아닌 삼베나 모시, 종이 등에 두껍게 칠을 해서 형태를 잡아나가는 것으로 실제 건칠 향아리 한 작품을 만들려면 삼베를 붙이고 칠을 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해야 한다. 오로지 칠을 통해 작품의 형태와 색이 결정되니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오롯이 2년 남짓 시간이 든다. 색은 물론, 모양까지 오직 칠하는 그 일 하나로 시작하고 끝나니 칠에 혼신의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쓰기 좋고 보기에든 고운 옷칠기 하나가 세상에 나온 사연은 이토록 절절하고 또 위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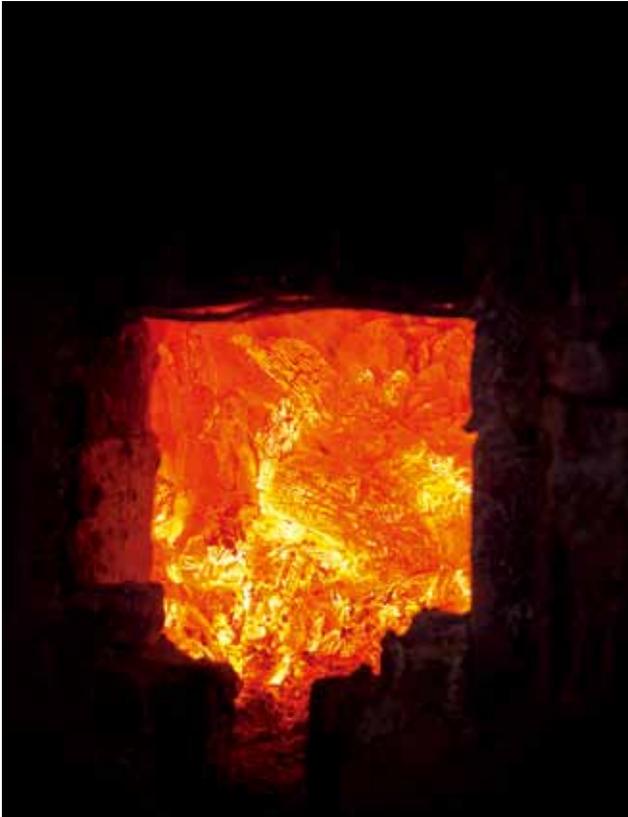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는 대한민국 최상질의 백탄을 구워내는 태백산참숯가마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 숯가마에서 벌건 불이 타오르며 새벽 여명을 밝혀준다.

이 숯가마의 주인은 김성필 사장으로 40년이 넘게 오롯이 숯장이 한길을 걷고 있다.

김성필 사장이 구워낸 대한민국 명품 백탄

글. 이용한 시인



태백산참숯가마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버드나무길 13-4

033-378-3037-8





“마침 잘 왔어. 오늘 솥을 꺼내는 날인데, 6시쯤 시작하면 점심 전에 끝날지 모르겠네.” 태백산참솥가마 한 기(가마 세는 단위) 면적은 2.5평 정도, 가마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양은 반원형이다. 보통 솥가마는 진흙과 화강암, 내화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위쪽이 뚫려 있는데 나무를 쌓은 뒤에 돔 모양으로 동그랗게 진흙을 쌓아 올려 가마를 덮는다. 솥가마의 특이한 점은 연기가 빠지는 굴뚝이 가마의 아랫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가마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참솥가마 안 온도는 최고 1,300°C 정도까지 솟아요. 기온이나 기압에 따라 완전한 솥이 되는 때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루나 하루 반 정도 밖에서 불을 때고 5~6일 만에 꺼내요.”

이렇게 해서 솥가마 하나에서 생산해내는 솥은 대략 드럼통으로 24~26드럼 정도. 김성필 사장에 따르면 솥가마가 들어서기 좋은 자리는 맞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바람이 들면 불을 조절하기가 힘든 데다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태백산 자락에 편안히 기대어 있는 이곳 터는 그래서 솥 굽기에 딱 명당이다.

나무 쌓기부터 식히기까지 신경 써 행길 일투성이

“나무를 거꾸로 세워야 하고, 최대한 밀착시켜서 나무 쌓는 거부터 마음을 쏟아야 좋은 솥이 나오지. 솥 만드는 것도 불만 때면 다가 아니에요. 우선 질 좋은 참나무를 구해다 가마 안에 차곡차곡 거꾸로 쌓고, 가마 문을 닫아 틈틈이 잘 밀봉하는 게 관건이지요. 그런 다음 가마에 불을 붙이고 하루 정도 불을 때고 나면 가마 안 온도가 치솟아서 나무 스스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공기구멍으로 바람 조절을 잘해야 질 좋은 솥을 얻을 수 있지,

1
별갈게 달아오른 솥을 꺼내는 작업은 겨울에도 땀이 날 만큼 고되고 위험하다.

2
만들자마자 팔려나가는 명품 백탄. 은은한 불기운과 특유의 향 덕분에 인기 또한 뜨겁다.

암.” 이렇게 가마 속에서 탄화의 과정을 6~7일 (가마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 정도 거치고 나서 숯을 꺼내 하루 정도 식히면 완전한 숯이 된다. 때마침 숯가마에 도착한 첫날, 운 좋게 우리는 숯 꺼내는 작업을 볼 수 있었다. 작업은 어스름 새벽빛이 내리기도 전에 곧바로 시작되었다. 김성필 사장이 가마를 짝 틀어막고 있던 문을 들어내는 순간, 벌겋게 달아오른 숯덩이가 모습을 보인다. 인부가 기다란 쇠부지깥이로 가마 안에 있는 숯을 꼬집어내자 다른 두 명의 인부가 커다란 부삽으로 숯을 날라 숯가마 옆에 늘어서 있는 드럼통에 채운다. 그러면 또 다른 한 명의 인부는 숯을 퍼담기 좋게 드럼통을 기울여주거나 다 채운 드럼통을 새것으로 바꾼다. 그렇게 몇 드럼의 숯이 채워지고 어느새 겨울 새벽 찬 공기가 무색하게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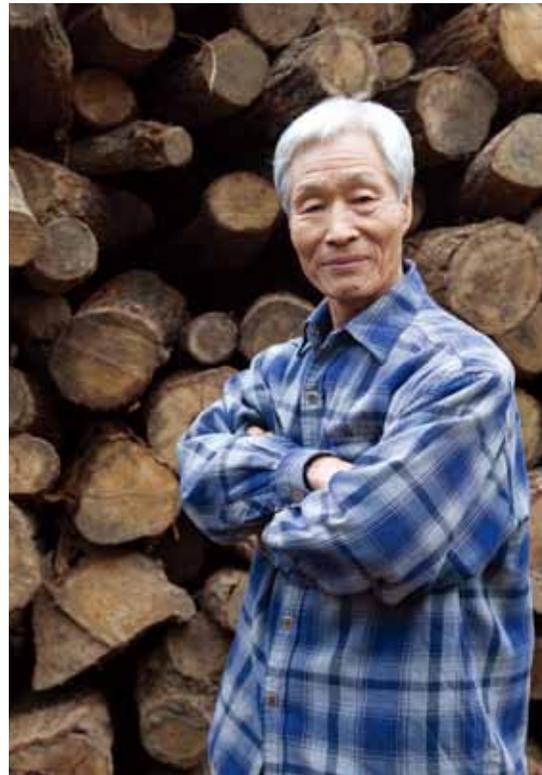
불보다 뜨거운 정성 없으면 못 버터

모름지기 숯을 구워내는 일은 한마디로 정성이 다. 숯이란 게 아무리 급해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숯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요. 정성을 게을리하면 숯은커녕 허무만 남지, 숯이 됐다 싶으면, 자다가도 뛰쳐나와야 돼.” 김 사장의 말이다. 사실 숯이란 것이 불 관리를 잘못하면,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된다. 그만큼 정성스럽게 불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김 씨의 아내 이영숙 씨는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 열두 번도 더 들었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땀거리(끼니를 때울 먹을거리)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고생 끝에 이제는 ‘태백산참숯가마’ 하면 아는 사람들 사이

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질 좋은 숯을 내는 곳’이라는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뜨거운 불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기어이 명품 백탄으로 거듭나는 숯의 운명은 불 같은 열정으로 한길을 걸어온 김성필 사장과 닮았다. 전통 대신 편리를 추구하는 요즘, 타협 없는 깐깐한 장인의 고집이 새삼 소중하다. 더불어 오늘도 소박한 상처림에 더해져 푸근한 한 끼 식사를 데워낼 백탄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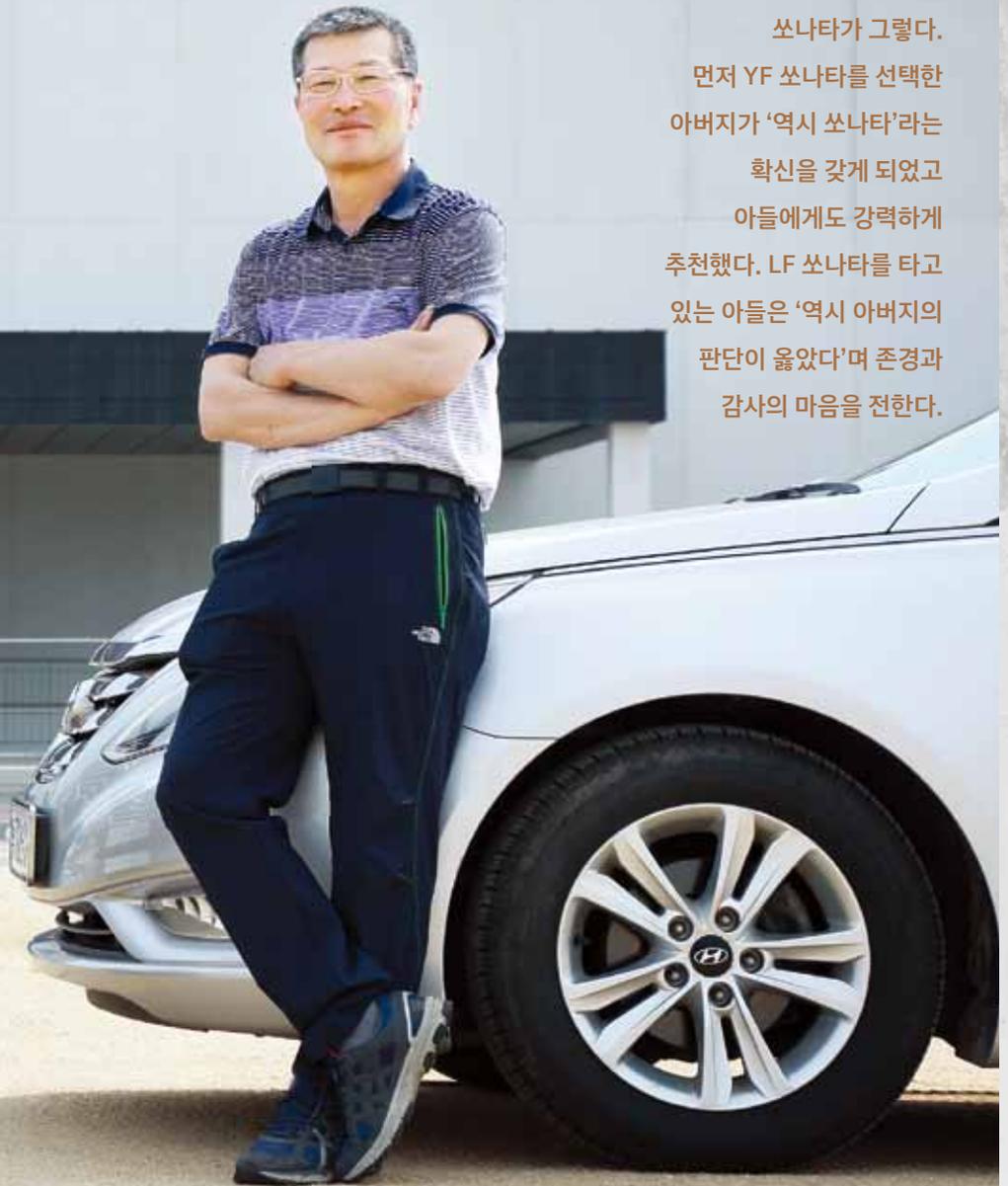
40년이 넘게 숯 만드는 일 한길만을 걸어온 김성필 사장. 그의 고집과 열정 덕분에 우리 전통 백탄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



A man with short dark hair, smiling, stands next to a dark blue SUV. He is wearing a blue and white checkered button-down shirt, tan trousers, and dark sneakers. The SUV is parked on a light-colored paved surface in front of a modern building with large windows. The text "세대가 바뀌어도 해답은 언제나 쏘나타"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세대가 바뀌어도
해답은 언제나 쏘나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김성환, 김대용 부자에게는
쏘나타가 그렇다.
먼저 YF 쏘나타를 선택한
아버지가 '역시 쏘나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했다. LF 쏘나타를 타고
있는 아들은 '역시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쏘나타 오너 아버지 김성환, 아들 김대용 부자



한 집안에 있는 차 두 대가 같은 차종인 경우는 드물다. 보통 용도에 따라 구매하거나 다양한 디자인과 승차감을 즐기 위해서라도 브랜드나 차종을 달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성환, 김대용 부자의 경우는 예외다. 아버지가 먼저 YF 쏘나타의 오너가 되었고 연이어 아들이 그 다음 세대 모델인 LF 쏘나타를 구매했다.

“무엇보다 쏘나타가 지니고 있는 국민 패밀리 세단이라는 이미지가 구매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차라면 기본이 탄탄하고 성능도 그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또 오랜 시간 이름을 지키며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온 차종이라는 점도 중요한 선택의 이유입니다.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앞서 해답을 제시하는 쏘나타의 ‘진화와 발전’에 신뢰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아버지 김성환 고객과 쏘나타의 인연은 역사가 깊다. 처음 구매한 차는 엑센트였다. 그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더 큰 차가 필요했고 당시 국민 패밀리카로 인기가 높았던 쏘나타 3의 오너가 된다. 이후 10년을 타고 난 후 새 차를 알아보던 중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난 YF 쏘나타를 보고 다시 한번 쏘나타의 고객이 되기를 결심했다.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감각에 민감하신 분이죠. 당시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YF 쏘나타의 ‘플루이드 스킵처’ 디자인 콘셉트가 꽤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 김대용 고객은 전국의 병원이나 건강검진 센터 등에 설치된 의료 진단 장비를 세팅하고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거래처를 방문할 일이 잦은 만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또한 길다.

“의료장비의 특성상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나 심야에도 출근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때문에 업무 전반에 있어 차량이 매우 중요한데, 아버지의 강력한 추천으로 LF 쏘나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대용 고객은 LF 쏘나타로 마음을 굳히기 전 고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결혼 계획이 있는 아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너끈히 탈 수 있는 내구성, 아이들이 태어날 경우 타게 될 뒷좌석의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두루 고려해 LF 쏘나타를 추천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상담에서 구매 그리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오너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주의도 마음에 들었다.

“오너드라이버로서 직접 운전을 해보니 완성도나 디자인, 품질 면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더불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을 태우고 쏘나타를 운전해 시골이나 바닷가로 가족여행을 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연스럽게 ‘쏘나타는 우리 차’ ‘아버지가 믿고 가족들을 태우는 차’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부자가 모두 쏘나타를 타게 되면서 대화의 기회도 많아졌다.

“같은 쏘나타 오너가 된 후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가족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할 때면 운전석과 조수석은 항상 아버지와 제 차지죠. 이동하는 중간 도로에 보이는 모든 차가 대화의 소재가 되는데, ‘어떤 차가 새로 나왔는데 성능이나 디자인은 어떨까, 저 모델은 디자인이 눈에 띈다’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부자 사이가 한결 친숙해진 걸 느낍니다.”

아들 김대용 고객이 LF 쏘나타를 구매한 이후에는 닮은 듯 다른 점과 두 차의 개성을 비교하듯 공유하면서 부자는 쏘나타 오너로서도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아버지로서 아들과 함께 쏘나타의 오너가 된 게 여러모로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사람이나 자동차 할 것 없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달라지지 않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성능과 디자인에 있어서도 안주하지 않는 쏘나타가 앞으로도 오래 사랑받는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푸른 지구, 더 맑은 세상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NATURE TOUR, 자연을 닮은 여행을 제안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역시
맑고 청정한 자연입니다.
크고 넓은 자연의
품 안에서 쉬다 보면
어느새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H-Premium Family>
매거진이 우리나라 곳곳의
맑고 푸른 자연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지금 출발해보실까요.



회색 도시의 단조로운 색감과 반복되는 헛헛한 일상이 지겨워질 때, 대자연의 위로와 펄떡이는 생명력으로 심신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을 때는 한반도 곳곳에 숨겨진 힐링 스팟, 원시자연 속으로 떠나보자. 문명의 시간에서 훌쩍 벗어나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다시 힘차게 살아낼 기운이 솟는다.

전북 부안 채석강 - 경북 창녕 우포늪 - 전남 순천 순천만 - 제주 오름

원시자연, 그 너르고 넉넉한 품에 안기다

자연이 선사하는 위로와 휴식, 탄성을 자아내는 절경을 만끽하고 싶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국제선 비행기에 오른다. 하지만 한반도 곳곳에도 원시자연의 매력이 돋보이는 힐링 스팟이 존재한다. 부안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채석강은 시성 이태백이 노닐며 시흥을 돋웠다는 중국의 채석강과 닮아 이름 지어졌다. 격포해수욕장에서 격포항 등대까지 1킬로미터에 달하는 퇴적암과 해식동굴의 장관은 시간을 되돌린 듯 태초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더불어 채석강 해안길 바로 곁으로 치고 들어오는 파도의 포말이 메마른 가슴을 훌쩍 적셔준다.

드라이빙 투어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운전 재미가 각별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제격이다. 굽은 길을 따라 넘실거리며 도착한 늪

지에서 생생하고 건강한 생명의 힘을 마주할 수 있다. 더불어 사람과 포유류, 조류와 어류가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상생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순천만은 가슴을 뻥 뚫어줄 청정한 바람과 짹짹하고 비릿한 날것 그대로의 갯벌을 감상하기에 최적지이다. 장관을 이루는 갈대군락지와 그 사이를 S자로 굽이치며 흐르는 수로의 곡선미가 여유를 선사한다.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은 큰 화산의 주요 분화구 등성이에 생긴 작은 화산을 일컫는 말이다. 평화로운 전경에 아기자기한 방점을 더해주는 오름이 있어 제주는 더욱 정겹다.

이 곳 중 어디여도 좋다. 일상에 찌는 청정한 침포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보자.

1

채석강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063-580-4388

<http://www.ibuan.co.kr>





우 포 늪
원시자연이 빚어낸 공존과 평화

1천여 종의 생명체를 품어 기르는 어머니의 땅 우포늪. 1억 4,000만 년 전 태고의 시간부터 오늘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 겨울이면 날아온 철새들로 북적인다. 바닥에는 물에 잠겨 크는 침수식물이 무성하고 물속으로 반쯤 밀동을 담근 버드나무가 우뚝 서 있다. 늪 곁으로 갈대가 하늘거리며 지친 생명들을 손짓해 부른다. 땅과 물 사이 어디쯤 존재하는 우포늪은 그래서 다른 생명들에게도 관대하다. 함지박



을 인 아낙네가 우렁이를 잡고 작은 배에 탄 어부가 조용히 그물을 던진다. 그렇게 우포늪에서는 아름다운 공존과 평화가 자연스러운 하나의 풍경이 된다.

[우포늪](#) 경남 창원군 유어면 우포늪길 220 | 055)055-530-1556

[우포늪 생태체험장](#) 경남 창원군 대합면 우포2로 370 | 055-532-5501 | www.cng.go.kr/tour/upo-park.web



전라남도 남해안에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잇는 만이 있다. 순천만이다. 80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갯벌 순천만은 오랜 시간 천천히 퇴적되어온 미세질의 점토층이 25미터에 걸쳐 펼쳐진 우리나라 습지 생태의 보고다. 맛조개, 꼬막조개가 넉넉하게 잡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짙은물에 참갯지렁이, 검정비틀이고동과 같은 생명들이 철새를 부른다.



순 천 만

생명의 소용돌이, 지구의 허파

소설가 김승옥은 이곳 순천 특유의 분위기를 대표작 <무진기행>에 담아내기도 했다. 이른 새벽, 물으로 상륙하는 안개를 바라보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순천만습지](http://www.suncheonbay.go.kr)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513-25(대대동) | www.suncheonbay.go.kr

[순천만국가정원](http://www.scgardens.or.kr) (동문)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1 / (서문)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7 | 1577-2013 | www.scgardens.or.kr



오름. 이름에서 정겹고 따스한 감성이 전해진다. 오름은 측화산을 이르는 제주도 방언이다. 제주에서 어디서나 이 오름을 만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오름 만한 규모를 갖춘 것만 255개에, 작은 것들까지 더하면 모두 360여 개의 오름이 자리하고 있다. 한라산에서 북동쪽으로 흙붉은오름, 돌오름, 불칸디오름, 물장오리오름, 성진이오름으로 이어져 민오름까지 일직선으로 자리 잡은 오름 무리가 제주도



오름
한 번은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아야 할 땅

를 대표하는 오름이다. 사실 오름을 오르는 이유는 등산보다는 조망에 있다. 들녘 가운데 우뚝 솟은 오름에서 내려다보는 제주의 풍경은 그대로 한 폭의 작품이 된다.

제주올레길 제주도 서귀포시 중정로 22 2층 | 064-762-2190 | www.jejuolle.org

제주오름 관련 정보 제주도 제주시 선덕로 23(연동) 제주웰컴센터 | 064-740-6000-1(제주관광공사) | www.visitjeju.net

지난봄 서울의 한 미술품 경매에서는 김환기의 점화 추상작품 <고요Tranquillity>가 65억 5천만 원에 낙찰되며 불과 수개월 전의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바꾸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매료시키는 것일까? 김환기 작품에 담긴 정서와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글. 박미정 환기미술관장 사진제공.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수화樹話 김환기의 예술세계

김환기(1913~1974)는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정립한 한국 현대추상미술의 선구자이다. “오색찬란한 깃발이 하늘에서 휘날리는” 태몽의 예견처럼 화가의 길을 택한 김환기는 30년대 일본 유학시절부터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에 합류하여 당시 가장 전위적이던 추상미술을 시도하고 한국의 모더니즘을 리드하였다. 미술을 넘어 문학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깊은 관심과 폭넓은 교류로 미술가로서의 삶에 풍요를 더했고 운명의 예술동지이자 생의 동반자인 김향안을 만났다. 김향안은 김환기의 창작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영향을 주었고 그의 예술세계를 전시와 출판을 통해 널리 알렸다. 김환기의 사후에는 환기재단(1979)과 환기미술관(1992)을 설립하여 그의 유작을 영구보전

하고 문화유산으로 남겼으며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교육의 장으로서 한국문화예술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자연을 노래하다

김환기는 파란 하늘 아래 둥글둥글한 능선이 겹겹이 굽이치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소나무엔 철새들이 날아와 쪽빛 바다와 정답게 어우러진 남쪽 끝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의 섬 풍경은 그의 정서와 미감을 키워주었고 작품 세계에 남겨졌다. 김환기의 예술세계는 크게 동경과 서울, 파리, 그리고 뉴욕시대로 나눌 수 있다.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한 동경시대는 일본 대학 예술학원 미술부에서 시작된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이 활발하게 유입되던

1

환기미술관
서울로 종로구 자하문로 40길 63
02-391-7701
<http://www.whankimuseum.org>

김환기, 고요 5-IV-73 #310 Tranquillity 5-IV-73 #310, 1973, Oil on Cotton, 261x205cm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수화 김환기의 고향, 신안의 바다



© (재)황기재단·황기미술관

김환기, 10-VIII-70 #185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연작, 1970, 코튼에 유채, 296x216cm
 김환기는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에 담았다. 캔버스를 가득 메운 무수한 점이
 그 그리움의 깊이와 절절함을 전해주는 듯하다. 무수한 점들이 모여 이룬 작품은 마치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며 출렁이는 고향 바다와도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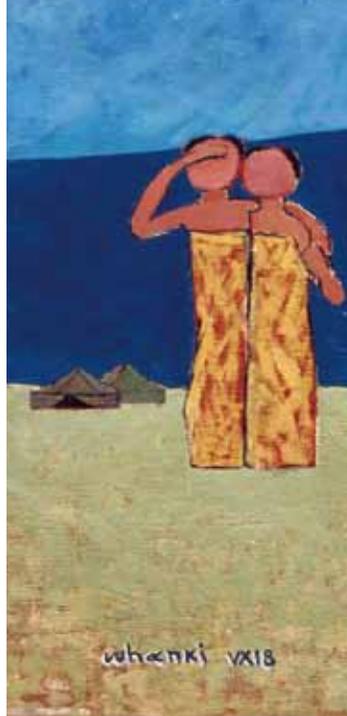
30~40년대의 동경은 유럽에서 주목받던 입체파와 표현파, 추상미술을 두루 접할 수 있는 최적지였다. 김환기는 추상적인 기법으로 자연의 서정성을 투영한 독창적인 화면에 몰입하는 한편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갔다. 1950년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그의 예술혼은 약해지지 않았고 부산으로 피란해 해군 종군화가로서 창작의 사명을 이어갔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적 시정신의 세계를 모색하다

김환기가 예술의 메카이자 중심지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파리로 간 것은 1956년, 43세 때였다. 그는 도가의 노장사상과 동양적 정서를 바탕으로 만물의 근원인 자연의 순수함과 품격의 구현을 통해 영원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로 조형시를 엮어갔다. 자연주의적인 조형성의 추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술의 본질을 찾는 한결같은 도구였다.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일관했던 창작열은 고향의 자연과 달항아리 같은 전통기물의 아름다운 선과 색을 예찬했다. 민족정서가 깃든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전통미의 가치인 절제와 여백이 돋보이는 화면을 구성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이미지, 그 불변의 감동을 작품에 담아내려는 시도는 김환기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예술로 추구하는 것의 본질을 각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했다. 파리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접한 김환기는 '강력한 시적 메시지'를 보았고 자신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무엇'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깨달았다고 했다.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인 '시적 메시지' 즉 '한국적 시정신'을 간직해야 함을 각성한 것이다.

점 하나하나에 일상과 우주, 사랑과 그리움을 담다

김환기는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 정착한다. 뉴욕에서 그가 몰두한 주제는 창작 이후 감상자와의 공감과 교감의 극대화였다. 그가 통찰로써 얻은 결과는 조형언어를 더 함축하여 '무위자연'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지는 보다 순수하고 본질적인 추상화이다. 그는 얇고 투명한 물감으로 스며든 듯 은은한 여운을 남겨 자연적 정서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드디어 1960년대 말 김환기는 선과 면마저도 사라지고 3미터 정도의 커다란 캔버스를 점으로 가득 채운 전면점화 全面點畵의 세계를 선보였다. 화면 속 점들은 마치 도시의 명멸하는 불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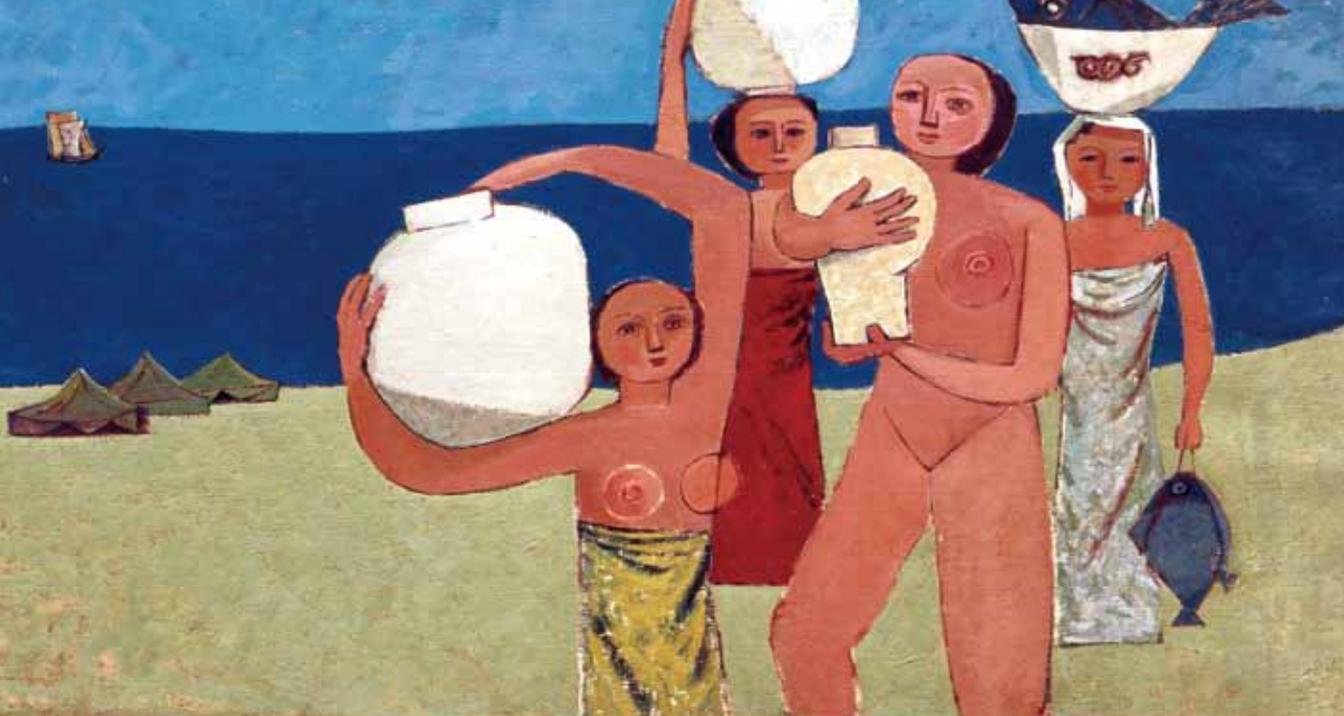


©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김환기, <항아리와 여인들>, 1951, 캔버스에 유채, 54x120cm



©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나 점점 증식해가는 생명체_세포처럼 보이기도 하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이나 은하수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법은 최대한 간결해 보이고 그 해석과 이야기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 영원을 향해 무궁무진해지는 경지, 김환기만의 독창적인 미학의 세계이다.

- 1
1940~50년대에 수화
김환기가 거거한 성북동
한옥을 그린 편지 그림
- 2
홍익대학교 학장 시절의
수화 김환기(1961)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김환기는 동경시절에는 동양적 정서에 기반한 자연의 표현질서를 찾았고 파리시절에는 관조적 시선을 통해 자연을 노래하였으며 뉴욕에서는 차가운 도시문명과 무한한 우주적 공간을 향한 상징의 세계로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자연을 가장 순수한 시정으로 토로하였다. 김환기가 깨달은 것은 '예술 속에서 예술을 통해 예술과 함께함'이 가장 완전한 창작의 길이라는 것이다. '무위자연'의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예술과 동반하여 투쟁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시정신詩精神의 세계는 예술가가 산고의 고통과 함께 이루는 '초월의 미학'이다. 초월의 영역은 영혼을 불씨로 창작열을 불사르므로써 이르게 되는 숭고한 세계이다. 이렇게 태어난 김환기의 작품들은 한없는 마음의 울림으로 우리 곁에서 숨 쉬고 있다.

신안에서 만나는 남도의 맛과 멋

신안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신안의 자라는 세계적인 화가 김환기뿐만이 아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먹고, 감상하고 체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신안이다. 때로는 향기롭고, 때로는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이에게는 추억을 되살려주고 어떤 이에게는 짜릿한 첫 경험을 선사한다. ‘슬로시티’ 신안이 품은 남도의 매력이 절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1 신안튤립축제

신안의 봄은 튤립으로 활짝 핀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꽃 축제, 신안튤립축제 때문이다. 총면적 12ha에 튤립이 형형색색 바다를 이루는 장관을 보기 위해 매년 5만여 명이 축제를 찾는다. 광활한 튤립공원에는 풍차와 대형전망대, 튤립파라솔 등 각종 조형물이 이국적 풍경을 연출해 카메라 뷰파인더가 어디를 향하든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방에 가득한 튤립을 감상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즐거울 수 있겠으나, 여기에 꽃마차 타기 등의 체험을 더하면 즐거움도 더 커진다. 색다른 꽃 축제에서 알록달록 향기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주소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일대
문의 061-240-4041



2 비금투어 체험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국내 최초의 천일염전이 있는 비금도에서도 다양한 체험여행이 가능하다. 신안 비금천일염마을에서는 전통방식의 염전 체험과 선왕산 등산, 갯바위 및 바다낚시 체험을 할 수 있는 1박 2일 비금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생성되는 소금, 시금치 등을 직접 만져보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줄 것이다.

주소 전남 신안군 비금면 천일염마을

문의 061-261-5004



3 신안병어축제

매년 6월 중순에는 제철을 맞이해 맑고 깨끗한 신안바다에서 갯 잡아 올린 병어를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병어비빔밥 만들기, 병어 시식회, 즉석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병어의 맛과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병어축제는 매년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명실공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수산물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주소 전남 신안군 지도읍 전통시장 일대

문의 061-240-3441



4 소금박물관·추포 여촌체험마을의 염전 체험

신안에서 염전 체험을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태평염전 내 소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신안군 임태면 수곡리에 위치한 추포 여촌체험마을 여행을 추천한다. 소금박물관 소금밭체험은 태평염전 현장에서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추포 여촌체험마을에서는 천일염 생산 과정을 보고 소금을 모아볼 수 있는 염전 체험을 할 수 있다.

소금박물관

주소 전남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1648 **문의** 061-275-0829

추포 여촌체험마을

주소 전남 신안군 임태면 수곡리 추포마을 **문의** 061-262-8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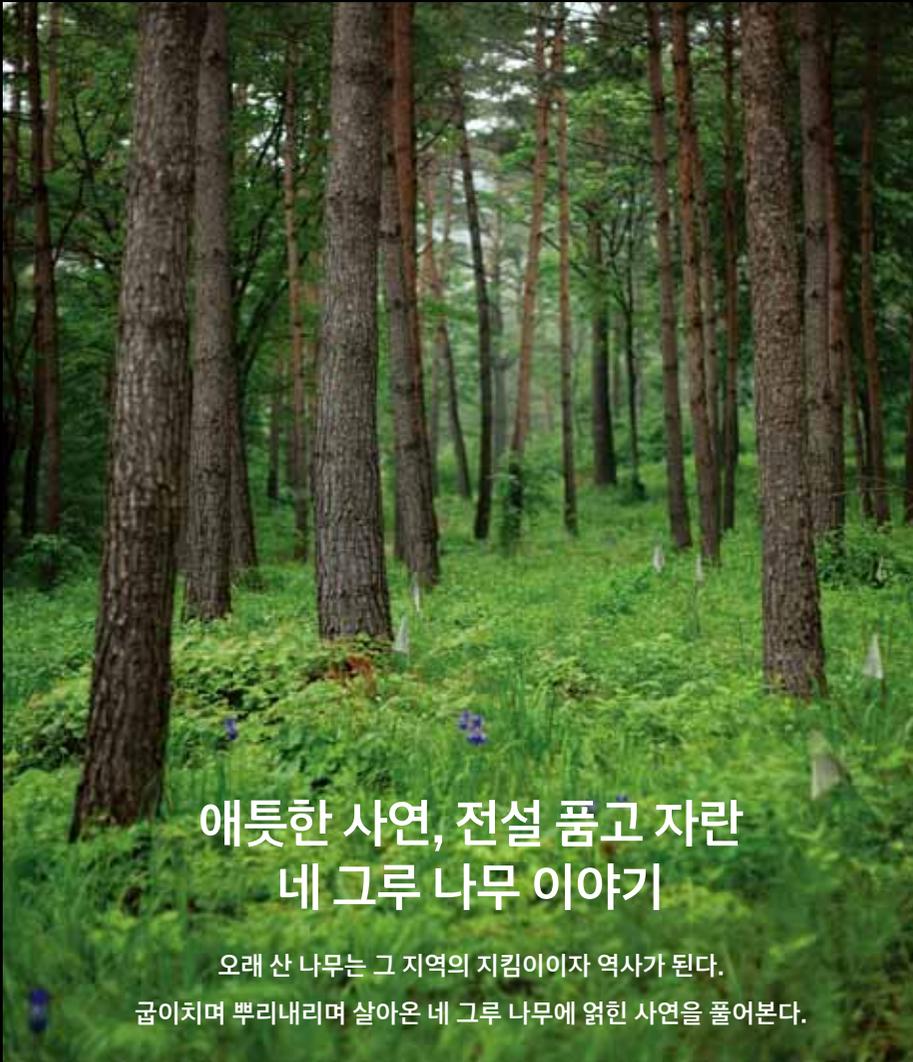


5 방축리 독살 체험

신안에서도 독살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방축리 검산마을로, 이곳에는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만들' 독살이 있다. 독살이란 간석지에 돌담을 쌓아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썰물로 물이 모두 빠져나간 얇은 바다에서 손이나 뜰채 등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소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검산마을

문의 061-271-7619



애뜻한 사연, 전설 품고 자란 네 그루 나무 이야기

오래 산 나무는 그 지역의 지킴이이자 역사가 된다.
굽이치며 뿌리내리며 살아온 네 그루 나무에 얽힌 사연을 풀어본다.

온전한 힐링과 위로, 울진 금강소나무

울진군 북면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붉은빛 몸통은 굽은 데 하나 없이 하늘로 솟아 있는데 울창하게 줄을 지어 자란 나무 군락이 숲을 이루어 손님을 맞이한다. 숲으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절로 번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자연의 생명력이 몸속 깊이 스며든다. 예약제로 탐방을 허락하는데 사람의 발길 닿지 않은 태초의 숲은 이려했으리라 짐작케 한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천천히 걷다 보면 울창한 숲을 집 삼아 살아가는 산양과 산새들의 울음소리, 바람소리가 아련히 들려와 심신을 위로해준다.

위치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



마을을 지키는 아홉 마리 용, 합천 묘산 구룡목

광해군 5년(1613년), 연흥부원군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역적으로 몰려 3족이 멸하게 된다. 이에 김제남의 6촌지간인 김규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합천 깊은 골로 도망쳐 오게 된다. 그러다 합천 묘산의 구룡목 아래에서 잠시 잠이 드는데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물을 길러 가는 꿈을 꾸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 땅을 파보니 과연 물이 솟아나 우물을 파고 결국 나무 곁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전한다. 오늘도 구룡목은 마을을 굽어보며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서 있다.

위치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상나곡 마을



청년 단종의 유일한 벗, 영월 청령포 관음송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는 키 30미터, 둘레 5.2미터에 이르는 수령 600년의 거대한 소나무가 있다. 천연기념물 349호 관음송이다. 귀양살이에 치친 10대 중반의 청년 단종이 홀로 동치를 안고 울거나 갈라진 가지에 올라 멀리 한양을 내다보았다는 이야기가 서려 있다. 어쩌면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죽은 단종 대신 오랜 시간 꺾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의 모습이 언뜻 한양으로 손을 흔드는 단종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위치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8



바람 부는 대로 넘실대는 멋, 청송 장전리 향나무

향나무는 여러 제식에 쓰이는 향의 재료이다. 그러나 수령이 수백 년이나 된 향나무를 보면 베어서 쓰기보다는 그대로 두고 감상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청송 장전리 향나무는 일찍이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은 입향조, 영양 남 씨 남계조의 묘소 곁에 있어 특히 남 씨 문종의 애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살아서는 묘역의 수호신으로, 죽어서는 영혼을 달래는 깊은 향을 선사할 장전리 향나무의 삶은 여러 모로 충절과 헌신을 추구했던 우리네 선비의 삶과 닮았다.

위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18

주천묵집은 30년 동안 주천면 신일리를 지켰다. 어머니에서 딸로 운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맛과 인심만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변한 건 세월. 손님도 주인도 딱 그만큼 나이 들었다. 주천 산기슭에서 캔 나물예, 영월 땅에 묻어 삭히니 맛은 물론이고 그 영양과 효능 또한 말할 필요가 없다.

대 이어 40년, 강원도의 맛 <주천묵집>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와 38번 국도를 타고 2시간 남짓 영월의 관문 격인 주천으로 들어선다. 고즈넉한 강원도 특유의 산골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접어드는데 주위로는 산과 들, 논밭의 풍경만 펼쳐져 있을 뿐, 한동안 흥청거리는 맛집의 분위기나 행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한갓진 곳에 맛집이 있으려나' 주저주저하며 길을 물어볼까 하는데 한가로운 국도에서 멀찍이 떨어진 터에 '주천묵집' 간판이 보인다. 눈으로는 그저 시골에서 마주치는 일상적인 가게다. 하지만 맛집은 눈이 아니라 입이 결정할 일. 장거리 운전에서 지친 몸도 쉬고 영월의 맛도 제대로 볼 생각에 신발을 털어내듯 벗어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은근한 감칠맛에 탱탱한 식감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묵밥 한 그릇 청한다. 멸치와 다시마 등으로 푹 우려낸 맑은 국물에 탱글탱글한 묵이 손가락만 한 크기로 가득 담겨 있다. 잘게 다진 김치와 김가루, 깨를 곁들여 올려 소박하지만 그 속에 다양한 맛의 조합이 깨알 같다. 정성껏 지은 조밥이 함께 밥상에 오른다. 가느다란 묵모양만 보고 젓가락을 들고 덤비면 오산이다. 묵밥은 국물과 함께 손가락으로 떠먹어

1

주천묵집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282-11

033-372-3800



야 제맛. 한술 뜨니 입술부터 뜨듯하게 몸을 데워주는 국물과 입안에서 혀를 차오르며 퐁퐁 튀는 듯한 메밀묵이 한데 어우러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퍼진다. 어머니에 이어 목집 살림을 챙기고 있는 조옥분 사장은 실력보다는 재료 덕분이라며 겸손과 자긍심이 적당히 섞인 답을 내놓는다. 메밀은 밭에서 기르고, 도토리 는 뒷산에서 직접 주워온다. 물은 500미터 지하에서 끌어올린 천연 암반수를 사용한다. 그러니 일정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빠뜨리지만 않으면 웬만한 맛은 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곳의 묵밥은 자극적이기보다는 스스스하고, 첫 맛에 ‘딱’ 하고 때리는 느낌보다는 신발을 신고 나서는 손님들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묘한 여운이 매력이다. 밑반찬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동네에서 나는 제철 채소를 사용해 만든 절임 반찬인데 짜지 않고 싱겁지도 않은 ‘적당히 짭조름함’을 잡아내는 손맛의 섬세함이 여간 아니다.

“절임고추 이거는 밥을 비벼 잡썰도 좋아요. 큰 고추를 소금물에 색혀가지고. 그 저 옛날에는 저거를 다져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과 마늘, 파하고 같이 넣어서 밥할 때 위에 얹어서 썰요. 같이. 그러고는 쓱쓱 비벼 먹으면 맛이 그만이지요. 반찬이 무슨 소용이래요.”

간장에 절여 잘게 썬 무, 손으로 조물조물 무친 깻잎, 와삭 씹히는 맛이 입맛에 귀맛까지 사로잡는 깔끔한 김치 맛 등 모두가 조옥분 사장이 직접 만든 것들이다. 뒤뜰에 묻어놓은 독마다 무장아찌, 김치, 깻잎이 가득 담겨 발효되며 땅기운



1



2





1

주천목집의 대표 메뉴
묵밥, 구수한 묵과 국물을
손가락으로 떠서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더없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

2

동글동글 양증맛게 빛어
끓여내는 감자옹심이. 쫄깃하게
씹히는 건더기는 물론 깊은
맛으로 연거푸 국물을 들이켜게
만드는 강원도 대표 메뉴다.

3

한잔 술이 생각난다면 안주로는
메밀전병이 제격이다. 부드러운
메밀 피와 아삭하고 짭 찬 속이
다양한 식감을 선사한다.



3

을 한껏 받아 결국은 약이 된다.

“봄이 되면 꼬들빼이(고들빼기)가 나와요. 꼬들
빼이가 나오면 해가지고 또 손님들 드려야지. 고
거 떨어지면 썸바귀 이런 거고. 철에 맞춰 준비해
놓는 거지요. 앞마당 잠깐 나가 냉이 캐다가 무쳐
낼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싱싱하니까 따로 손 갈
일이 없어요. 땅에서 오는 재료 맛있고 그래서 더
맛나고 그렇죠.”

대표 메뉴는 묵밥이지만 직접 만든 두부를 산초
기름으로 부쳐낸 강원도 토속음식, 산초두부구
이가 주인장이 추천하는 숨겨진 맛이다.

“산초는 기관지에 좋아서 겨울철에는 꼭 한번 잡
쉬보시라 권하고 싶는데 손님들이 팔아먹을라고
그러나 생각하실까 봐요.”

꿀꺽 삼키고는 말을 못했다는데 그 말에 담긴 순
박함이 고소하고 정겹다. 강판에 생감자를 직접
갈아서 멥처 만드는 감자수제비, 메밀로 전을 부
쳐 소를 넣은 메밀전병 모두 누가 낫다고 할 것 없
이 강원도 맛에 향까지 제대로 머금고 있다.

어머니에게서 맏딸로 이어진 30년 손맛

“손님들이 문 닫기만 하면 가만 안 있는다 그래
요. 이 양물고 견디고 해내시라고 그러더라고. 허
리가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아, 병원비 대
고 방 알아봐준다는데 어찌 그만뒀어요. 그 정을 다
모른 척하고서.”

다행이다. 한참 동안은 영월에 들르면 변함없이
주천목집 묵밥을 맛볼 수 있다. 여행길, 오랜 여
운으로 남은 입맛에 이끌려, 조옥분 사장의 정 들
뻑 담긴 말솜씨 들으러 다시 영월 이 시골에 들러
야 할 것만 같다.

미조해녀해물집은 김정열 해녀가 운영하는 소담한 해산물집이다. 제주에서 시집와 생계를 위해 물질을 시작한 게 어언 40년이 넘었다. 김정열 해녀와 남해 청정 바다가 선사하는 개운하고 차진 맛을 확인하기 위해 미조항을 찾았다.

해녀 물질로 건져 올린 남해 바다의 싱싱함

입맛 다시면서 찾은 미조해녀해물집엔 어찌 손님도, 주인도 없다. 아무렴 어떠냐란 식으로 기다리기를 한 시간. 식사 시간임에도 누구 하나 들락거리지 않는 것이 수상하다. 가게를 나와 근처 주민에게 물으니 “거긴 예약 안 하면 못 묵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왔는가베?”라며 꺾꺾 웃는다. 그리고 물질 나갔다 돌아올 시간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팁을 슬쩍 전해준다. 방파제에서 김정열 해녀를 기다리기를 십여 분, 동네 주민 말대로 갑판 위에 삼삼오오 해녀를 태운 배가 항구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배가 정박하기를 기다려 가게의 주인 김정열 해녀를 찾았다. “전복 먹고 싶어 왔다고? 그럼 가게 가서 기다리셔. 뭐가 그리 급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미조 바다에서 방금 건진 짭짤한 건강

“오늘 운 좋습니다.”

김정열 해녀가 소쿠리에 담긴 해산물을 수조로 옮기며 말했다. 본래 예약 안 하면 멀리서 온 손님이라 해도 상을 차려주지 않는 단다. 너무 야박한 게 아닐까 싶지만 다 이 유가 있는 거절이다. 유통을 거친 해산물을 쓰지 않고 오로지 김정열 해녀가 ‘직접’ 잡은 해산물만 쓰기 때문이다. 상차림의 메인 이 되는 전복은 물론 해조류 밑반찬도 모두

1

미조해녀해물집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31-1
055-867-3661





1

직접 채취한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손님에게 대접할 양이 늘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서울에서 온 손님을 박대할 수는 없었는지, 수조에서 '실한 놈'으로만 골라 상차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무뚝뚝한 듯 정겹다.

김정열 해녀는 해녀의 고장 제주 출신이다. 제주에서 살던 그가 남해로 올라오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남편을 따라 남해 땅에 시집와 물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예순하고도 일곱'이 되었다. 제주에선 그저 먹이나 감는 수준이었지, 자신이 해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단다. 그러나 신혼집의 녹록지 못한 살림살이 탓에 잠수복을 입게 됐다.

그렇게 잠시 기다리니 바다 내음 물씬 나는 풍성한 상이 차려졌다. 전복과 해삼, 멧게, 참소라를 큼직하게 썬 해산물회가 참 먹음직스럽다. 한 점 먹으니 마치 바닷속에 들어갔다 온 느낌이다.



2

태풍에 쓸려가고 큰볼이 났어도 이어온 해녀 고집

그렇게 열심히 젓가락을 놀리던 중 김정열 해녀의 오랜 단골이 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어찌 주문하는 메뉴가 단출하다. 미조까지 찾아왔으면 회를 먹을 성심인데 ‘고작’ 사람 수에 맞춘 죽 세 그릇 주문이 전부다.

“여기는 죽이 최곱니다. 미조까지 와서 전복죽을 안 먹고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제 돈으로라도 시켜드릴게요.”

집이 사천이라는 강성현 씨는 십여 년 단골이다. 지금은 가게가 미조항에 위치해 있지만 예전에는 해안도로변에 있었고, 태풍 매미 때 가게 일부가 무너지고, 전기 누전으로 불까지 난 후 지금의 미조항으로 옮겨온 ‘히스토리’까지 알고 있는 반 손님, 반 주인이다. 그때야 ‘우짜노’ 싶었지만 지금 돌아해보면 ‘대박’ 나기 위한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다른 가게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단골 중의 단골인 만큼 가게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다른 전복은 맛이 없어! 남해 전복이 최고지

“전복집은 많습니다. 다 자연산을 쓴다고 하는데 바다에 종편 뿌려놓고 그걸 다시 잡아들인 전복을 쓰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장님처럼 정말 자연에서 자란 걸 쓰는 집은 없는 거지.”

하지만 이런 전복을 잡기 위해서는 고된 노동인 물질이 요구된다. 김정열 해녀와 같이 숙련된 해녀도 한 번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30~40초다.

“작업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자기가 작업하고 싶은 데서 풍당풍당 빠지는 거라. 그리 작업하고 집에 가면 식욕이 없습니다. 발일, 논일 하고 나면 밥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안 그래. 그만큼 고되다는 거제.”

두릉박과 망아리 들고 잠수복을 입은 지 벌써 40여 년. 다리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직업병도 얻었다. 사람을 쓰면 될 일 아닌가 싶지만 그것 역시 성에 차지 않는다. 직접 작업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도 않거니와, 인건비가 들어가면 지금 대접하는 가격으로 상차림을 못 내놓기 때문이다.

“미조라는 곳은 오며 가는 길에 들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먹고 찾아와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 좋은 걸 같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멀어도 오는 집이 미조해녀해물집입니다.”

단골손님의 남사스러운 칭찬에 수줍었는지 김정열 해녀가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을까, 성계미역국 한 대접을 들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그 시절 단골들을 위해 내놓던 특별 메뉴다. 성계미역국 한 대접이 또 술을 부르고 미조항의 저녁은 그렇게 더 깊어져만 간다.

1

남해 물속을 온몸으로
누비며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잡아 올리는 김정열
해녀. 바꾸니 가득 해삼,
전복을 잡은 날은 절로
환한 웃음꽃이 핀다.

2

별다른 양념 없이
전복 내장을 곱게 다져
끓인 김정열 해녀표
전복죽. 한술 뜨면
건강하고 싱싱한 바다의
맛이 혀끝으로 듬뿍
전해진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일상에 찍는 짜릿한 느낌표



강수란 고객에게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준
소중한 친구다.
유류비 걱정 없이
장거리 여행을 즐기고
정숙한 실내를 가득
채우는 음악 선율에
몸을 맡기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고
짜릿한 즐거움이
온몸을 가득 채운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오너 강수란 고객



흰색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전기차 특유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보며 슬쩍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차에서 내리는 강수란 고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사실, 도로 위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일렉트릭 특유의 세련된 프론트 뷰에 흔치 않은 디자인인 만큼 호기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즐긴다. 특별한 개성과 앞서가는 성능을 지닌 아이오닉 일렉트릭 오너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수란 고객이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인연을 맺은 건 작년 가을이다. 앞서 타던 차 역시 에너지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지만 조금 더 경제적인 모델을 찾고 싶어 여기저기 조연을 구했고 최종적으로 아이오닉을 낙점하게 되었다.

“이전 차량과 아이오닉을 비교하면 매월 20~30만 원의 유류대가 절약되는 셈이에요. 구매 전에는 수치만 보고 괜찮겠다 하는 정도였지만 직접 타보니 상상 이상이라고 할까요. 아이오닉 구매 후로는 매월 차량 관리비를 계산하는 게 즐거운 이벤트가 됐어요.”

지인들은 전기 충전 방식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블루링크, EV where 등 전기차 전용 앱을 통해 차량의 남은 에너지 체크 및 충전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 충전소도 곳곳에 있어 ‘충전=절약’이라는 생각에 충전

소 가는 길도 나들이인 듯 즐겁다. 예정 목적지 운행 시에 필요한 에너지량도 실시간 체크 되니 불안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자주 충전할 필요도 없다. 강수란 고객의 경험에 준해보면 완충시 시외 주행은 250km 내외까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기름값 걱정이 없으니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어요. 친구들과 나들이를 갈 때도 ‘내 차로 가자’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남편과도 자주 여행을 즐기며 최근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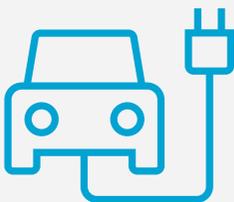
강수란 고객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매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 면에만 이슈가 집중되어 오너로서 아쉬움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전기자동차의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에너지 효율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매력이 많은 차예요. 정속성은 물론이고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착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강수란 고객의 지인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조금은 일찍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 아닌지 걱정해주었지만 이제는 디자인이나 경제성, 승차감과 편의장치는 물론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다음 차로 낙점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웬만한 여행 가방과 골프백이 넉넉하게 수납되는 적재공간 덕에 장거리 여행도 문제없어요. 자동차 한 대가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고 즐겁게 해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오닉 일렉트릭 덕분에 남편과도 매번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동행이 있다는 것만큼 멋지고 든든한 일도 없다. 강수란 고객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카 라이프, 새로운 내일에 지원을 보낸다.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충전해드립니다.

※ 단,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장소 서비스 제한 가능

이용대상: 블루멤버스 회원

충전량: 1회 7kWh(약 44km 주행가능)

이용한도: 연 4회(블루멤버스 회원 가입일 기준 5년간)

신청방법: 마이카스토리 APP / 블루링크 SOS 버튼 / 고객센터(080-600-6000)

※ 마이카스토리 APP은 7월 15일 이후 신청 가능

MODERN PREMIUM, 남들과 다른 특별한 즐거움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하루하루 새로운
유행이 생기고
또 없어지는 요즘,
트렌드에 이끌려가는
삶 대신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새롭게 스타일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H-Premium Family >

매거진과 함께 보다
특별한 즐거움,
색다른 만족을 선사하는
Modern Premium
제안을 주목해주세요.



고가라고 모두 명품은 아니다. 부담 없이 나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작지만 격조 높은 명품이 있다. 시간과 역사, 이야기가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인 마이너 럭셔리 아이템을 소개한다.

일상에 더하는 작은 사치, 마이너 럭셔리

필기구엔 소모품이다. 잉크가 다하면 버리고 또 새로운 디자인의 멋스러운 제품을 구매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기어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만년필을 찾는 이들이 있다. 잉크를 충전하고 펜촉을 교환하는 번거로움을 즐거움으로 인식하는 이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신사라고 부른다.

사실 정장과 구두를 기본으로 하는 남성 복식 문화에서 신사를 규정하는 차별성을 꼽기란 쉽지 않다. 이때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만년필이야말로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해주는 개성 넘치는 아이템이 된다. 편리와 속도의 시대에 자신만의 펜을 지니고 다니며 품격 있는 펜글씨 서명을 남기는 남자. 어쩐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한편, 만년필만 남성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다. 만년필이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는 승부수라면

안경은 일상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주는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안경에 투자하는 비용은 아깝지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쓴 만큼 그 효과도 강력하게 나타난다.

실제 우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안경으로 인물을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동그란 안경, 이 시대의 보헤미안 조니 뎀의 클래식한 뿔테 안경과 시대를 앞서간 천재 스티브 잡스의 심플한 안경까지, 이제 안경은 아이템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앞에 남은 선택은 하나다. 나를 진정한 나로 규정해 줄 나만의 아이템을 찾는 것이다. 합리적 소비로 개성과 품격, 스타일을 높여줄 마이너 럭셔리 아이템으로 지루한 일상에 느낌표를 찍어보자.

영화 <킹스맨>을 통해 '이 시대의 젠틀맨'으로 인기를 얻은 콜린 퍼스. 신사를 완성하는 것은 매너와 더불어 적절한 아이템임을 온몸으로 증명한다.





1



2

만년필, 슈트 속에서 빛나는 신사의 품격

가장 편리한 필기도구는 볼펜이다. 잉크가 다하면 버리고 새로 구매하면 그만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분실의 충격도 크지 않다. 하지만 필기구의 가치를 단지 편리함과 가격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만년필을 보면 이해가 간다. 짙은 색 정장과 블랙, 혹은 브라운 컬러의 구두로 상징되는 신사의 패션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소지품이 바로 만년필이다. 중요한 서류에 사인할 때, 손 글씨로 진심을 담아 전할 때,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만년필은 단순히 필기구의 기능을 넘어 그 주인의 품격과 스타일을 상징하는 매개가 된다.

최초의 만년필, 워터맨

만년필이나 볼펜과 같이 대중적인 필기구가 생기기 전, 즉 1800년대 초까지는 거위 깃털에 잉크를 묻혀 쓰는 깃펜을 사용했다. 마치 고전 영화처럼 낭만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시로 잉크에 펜을 찍어 쓰는 일은 노동에 가까웠다. 길게 뻗은 깃털과 무거운 잉크병은 휴대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후 금속 펜촉이 발명되었지만 필기를 위해 눌러쓸 때 적절한 양의 잉크가 공급되는 현재의 만년필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1883년 뉴욕, 보험 중개인이었던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은 어느 날 중요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만년필 잉크가 흘러넘쳐 계약을 망치게 된다. 이에 워터맨은 제대

1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만년필을 교환하는
이 장면은 펜을 제공한 파카사의
유명한 광고가 되었다.(1988년)

2

1916년 14K의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워터맨사의 만년필.

3

워터맨 블루 옵세션 컬렉션
워터맨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대표 제품 라인인 엑스퍼트,
퍼스펙티브, 카렌, 헤미스피어
모델에 적용했다. 고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정교한 세공으로
품격을 높였다.

로 된 만년필을 만들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모세관 인력 원리를 적용하여 완벽한 필기가 가능한 현대식 만년필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때 세상에 선보인 모델이 바로 세계 최초의 만년필 ‘레귤러(Regular)’이며, 인류 필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일대 사건으로 기록에 남게 된다.

만년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다

워터맨은 ‘최초’의 수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대적인 우아함을 갖춘 패션 아이템으로 발전을 이어왔다. 특히 디자인의 발전을 통해 만년필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끌어올린 가공 기술은 주목할 만하다. 주얼리 가공을 통해 밋밋하던 만년필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더한 워터맨은 다양한 히트작을 연이어 내놓으며 만년필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1996년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과 워터맨의 협업으로 탄생한 ‘한정판 3741’은 워터맨과 부쉐론의 탄생 연도를 합한 제품명으로, 본격 주얼리 만년필의 시대를 열게 된다.

이후 패션 디자이너 ‘아네스 베’, 세계 패션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파리 패션 위크’ 등과 다양한 공동 작업을 진행하며 멋과 기능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이런 다양한 작업은 워터맨의 매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프랑스 특유의 감성과 품격을 지닌 워터맨의 고유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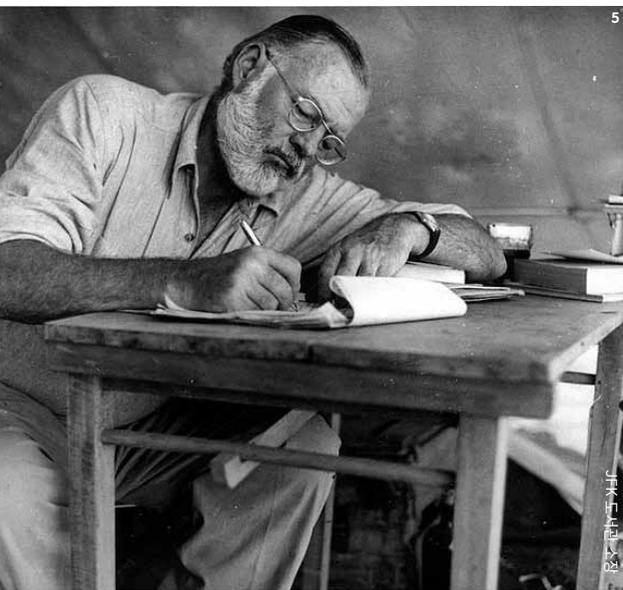
한정판 만년필, 더욱 빛나는 가치와 품격

만년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정판 만년필을 빼놓을 수 없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대량생산 제품이 아니라 허락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면에서 한정판 만년필은 마니아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되었다. 한정판 만년필의 시초는 1965년, 파카의 ‘75 Spanish Treasure Fleet’이다. 이 만년필은 디자인만큼이나 스토리





4



5

4
최초의 한정판으로 알려진 일명 75 스페니시 트레저로 불리는 파카의 만년필.

5
헤밍웨이는 몽블랑 작가 시리즈의 첫 주인공이었다.

도 매력적이다. 1715년 스페인으로 은을 신고 가던 일명 스페인 보물선이 거친 파도를 만나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침몰하게 된다. 보물선의 탐사에 관여했던 파카는 곧 당시 끌어올린 특별한 은을 'Parker 75'라는 기존 모델에 적용해 '살짝 바꾼' 제품을 4,821개 만들었다. 이 만년필을 기존 3배 가격인 75달러에 출시한 것이 바로 '한정판'의 역사다.

한편, 1992년 몽블랑은 두 개의 중요한 한정판을 선보인다. 파카가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특별한 소재를 적용한 한정판으로 이목을 끌었다면 몽블랑은 '작가 시리즈'와 '후원자 시리즈' 한정판으로 당대 지식인, 문학인들을 적극 활용했다.

<노인과 바다>의 작가로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가 작가 시리즈의 첫 주인공이었고, 15세기 후반 예술과 문학의 후원자로 유명한 로렌초 데 메디치가 바로 후원자 시리즈의 첫 모델이다. 출시 당시 486유로였던 헤밍웨이 만년필 초창기 모델은 약 20년이 지난 지금 출시가의 8배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여전하다. 스토리텔링의 힘을 한 세대 앞서 간파한 몽블랑의 전략이 새삼 돋보인다.

나만의 개성,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만년필

품격과 개성으로 상징되는 신사의 소품, 만년필. 선택의 폭도, 디자인도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적합한가이다. 브랜드와 스토리에 억눌리지 말고 자신의 스타일을 중심에 두고 오랜 시간 함께할 친구를 선택하듯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지는 몇 안 되는 제품들 중 만년필도 속하기 때

6

몽블랑 헤리티지 루즈 앤드 스페셜 에디션

관능적인 곡선미를 자랑하는 뱀을 디자인 테마로 한 컬렉션이다. 만년필의 끝부분을 휘감은 뱀은 캡으로 내려가 클립이 된다. 캡과 배럴은 고급 블랙 레진과 래커로 만들고, 몽블랑 로고는 캡 쪽에 각인했다. 전통적인 오프화이트 컬러의 몽블랑 스타는 코랄 컬러의 고급 레진 바탕에 넣어 크라운을 장식했다. 클립은 새로운 합금으로 만들어 구부러짐 없이 들어 올릴 수 있다.

6



7

워터맨 헤미스피어

워터맨의 가장 대중적인 모델로 심플함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됐다. 슬림한 바디와 클립, 워터맨의 로고가 각인된 중앙의 링은 심플하지만 우아한 매력을 선사한다. 다양한 소재와 컬러를 적용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7



8

워터맨 잉크

다필체에 개성과 차별화된 터치를 불어넣는 고급 잉크로, 편안한 필기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8





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위해 살고 또 일하고 있는가. 작은 필기도구에 불과하지만 진열장 속의 만년필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의미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얼굴, 안경

안경은 또 하나의 얼굴이다. 오랜 시간 애용하다 보면 안경 없는 얼굴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유명인들 중에서도 개성 있는 안경으로 기억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 하면 바로 동그란 안경이 생각난다. 바로 일본 브랜드 '하쿠산'의 제품이다. 1883년 일본에서 문을 연 하쿠산은 130년이 넘는 오랜 역사 동안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나 유통과는 거리가 있어 일본 내에서도 5곳의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존 레논의 팬이나 안경 마니아들 중에서는 오직 존 레논 스타일의



9

존 레논을 상징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 동그란 안경은 '하쿠산'의 제품이다. 존 레논은 하쿠산의 안경을 가장 완벽한 선택이라고 자부하며 애용했다.

10

조니 뎀은 미국 브랜드 모스콧의 클래식한 뿔테 안경을 애용한다. 모스콧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뿔테는 물론 메탈테까지 안경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다.

안경을 사려고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하기가 존 레논 스스로가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정도니 그의 음악을 사랑한 팬들, 그리고 안경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흔쾌히 지갑을 열 만하다.

존 레논과 스티브 잡스의 둥근 테, 조니 뎀의 뿔테

둥근 안경 하면 스티브 잡스를 빼놓을 수 없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었던 깐깐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안경 브랜드 르노에서 만든 클래식 룬드 모델을 착용하며 애정을 보였다. 이 안경으로 인해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는 이미지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전문성과 친근함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데 성공했다.

이 시대의 보헤미안, 영화배우 조니 뎀 또한 안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주로 뿔테 안경을 선호하는데 미국의 모스콧 브랜드를 애용한다. 모스콧은 조니 뎀이 사랑하는 클래식한 뿔테는 물론, 독특한 디자인의 메탈테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안경의 트렌드를 이끌어온 브랜드로 꼽힌다.

한편, 안경 브랜드 올리버 피플스는 <로마의 휴

일>로 유명한 영화배우 그레고리 팩이 애용하던 안경을 그대로 복원한 모델을 선보여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스토리라 디테일이 돋보이는 안경

덴마크의 린드버그(Lindberg)는 1980년대 초, 안과의사 출신인 폴 린드버그가 세운 브랜드이다. 당시 비행기를 만들 때나 쓰이던 티타늄을 사용해 널리 알려졌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안경테'라는 철학을 가진 린드버그를 대표하는 것이 '에어 티타늄' 시스템이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나사 하나 없이 티타늄 철사를 구부리고 꼬아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스칸디나비아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더해 세련되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린드버그는 덴마크 왕실 공식 인증 마크를 받았으며, 여왕과 왕자의 사랑을 받는 안경으로도 유명하다.

고도수의 안경을 불편해하는 남편에게 부인이 직접 안경을 만들어 주면서 시작한 프랑스 하우스 브랜드인 안네발렌틴(Anne et Valentin)은 브랜드 스토리에서 알 수 있듯이 눈이 매우 나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아이웨어 브랜드이다. 1981년 프랑스 남부 도시인 툴루즈에서 출발했으며 예술적인 감각과 화려한 색상이 특징이다. 마치 툴루즈의 바다와 하늘, 도시의 꽃에서 영감을 받은 듯 밝은 컬러와 독특한 형태감을 자랑한다. 주로 고급 아세테이트 소재를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티타늄 소재의 안경도 제작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에서 소량만 생산하던 지역의 하우스 브랜드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제품을 유통하게 된 박철훈의 카페인(KAFFEINE)은 한 국민에게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제조 과정이 까다로운 도수테의 탁월한 착용감으로 유명하다. 안경사 출신인 박철훈이 20여 년 동안 수많은 브랜드의 안경을 다루다 한국인에게 편하고 필요한 안경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만큼 소재 개발에서 디자인까지 한국인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카페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품의 퀄리티에 최선을 다하는 브랜드이다.



11

11
린드버그안 Bruce
프론트 상단에 메탈 라인을 추가해 선글라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보잉 스타일의 안경이다. 심플함과 깔끔함은 유지하면서도 전면부에 포인트를 줘 유니크한 스타일로 착용할 수 있다.

12

12
안네발렌틴 Forever
견고한 금속과 플라스틱의 부드러움이 만나 밝고 경쾌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특징이다. 높은 강도의 코받침은 틀어짐이 적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13

13
카페인 con panna 1
반무테의 하급테 형태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내구성과 착용감이 뛰어나다. 디테일을 살리고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원두 모양의 코받침과 다리팁이 인상적이다.

12



13



운전석에 앉을 때만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페달링에 있어서는 편안하고 착용감 좋은 신발이 필수다. 심플하고 가벼운 드라이빙 슈즈로 운전의 즐거움과 일상의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자.

편안하게 심플하게, 드라이빙 슈즈

운전을 위해 신발을 산다? 언뜻 별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골프나 볼링 같은 스포츠를 즐길 때 각 종목에 걸맞은 기능과 디자인을 지닌 신발을 구비하는 것처럼 운전에도 적합한 신발이 따로 있다. 바로 드라이빙 슈즈다.

최초 드라이빙 슈즈는 F1 레이싱과 같이 전문 드라이버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서만 유용한 신발은 데일리카를 모는 오너드라이버들에게는 큰 필요성도, 매력도 없었다.

그러나 이후 자동차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고 그에 따라 편안한 착용감과 안전성을 고려한 신발의 필요성 또한 자연스럽게 커지기 시작했다.

운전 시에는 물론,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드라이빙 슈즈는 1963년, 이탈리아 구두

브랜드 '카 슈'가 처음 시장에 선보였다. 자동차와 패션의 나라다운 아이템이다. 당시 드라이빙 슈즈는 굽 없는 평평한 신발창에 자갈 모양처럼 생긴 일명 '페블'이라는 고무 돌기를 붙여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발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너드라이버 인구가 많지 않았던 탓에 초기 매출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카 슈의 뒤를 이어 드라이빙 슈즈의 대중화를 이끈 브랜드는 토즈다. 가격을 낮추고 색상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비자들은 운전석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편하고 활동성 좋은 드라이빙 슈즈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토즈의 드라이빙 슈즈는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일종의 '패션 단화'로 인식되며 데일리 슈즈로 큰 사랑을 받게 된다. 오

현대자동차가 슈즈 브랜드 TOMS와 함께 만든 드라이빙 슈즈. 운전 편의성과 착화감은 물론,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오너드라이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2층 숏에서 구매할 수 있다.



늘날까지 토즈는 다양한 색상과 소재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드라이빙 슈즈 시장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드라이빙 슈즈만의 특징을 꼽자면 신발 바닥을 뜻하는 아웃솔이 발뒤꿈치까지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신발 뒤꿈치까지 페블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은 미적으로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발을 비스듬히 세우고 페달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뒤꿈치는 중요한 운동의 축 역할을 담당한다. 미끄러지지 않게 축을 안정시키는 뒤꿈치 페블은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드라이빙 슈즈의 기능이자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드라이빙 슈즈는 신고 벗기 좋게 끈은 생략되어 있고 소재는 송아지나 어린 염소의 가죽을 부드럽게 부풀려서 만든 스웨이드가 주류를 이룬다. 소가죽의 경우 신었을 때 발과 신발 사이의 이격

없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착용감이 장점이다. 천연 소재인 만큼 통기성도 좋다. 부드러운 가죽과 굽이 따로 없는 신발 바닥 덕분에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점도 드라이빙 슈즈를 선택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우천 시나 장마철을 고려해 전통적인 드라이빙 슈즈 형태에 에나멜 소재를 채택하는 브랜드도 많다. 말랑 말랑하고 광택이 나는 에나멜 소재 드라이빙 슈즈는 자칫 우중충해질 수 있는 장마철 패션을 보완해주는 핫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가죽 본연의 패턴이 잘 살아 있는 타조 가죽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통기성이 좋은 패브릭 소재까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패션과 안전, 편리와 스타일까지, 드라이빙 슈즈는 패션과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시장에 선보일 드라이빙 슈즈의 진화가 새삼 기대된다.

2003년 개봉한 영화 <사이드웨이>는 두 중년 남자가 함께한 5일간의 와이너리 투어를 담은 작품이다. 따뜻한 햇살과 청명한 바람, 그리고 와인에 심취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 영화 <사이드웨이>의 여정을 따라가보자.

영화 <사이드웨이>와 함께하는 산타 바바라 와이너리 투어



두 남자가 여행을 떠난다. 마일스는 5일 동안 와인을 실컷 마실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다. 그런데 친구 잭은 뭔가 다른 꿈꿉이가 있는 것 같다. 결혼 전 마지막 여행인 만큼 낯선 여인과의 로맨스를 꼭 이루겠단다. 이 여행, 어찌 심상치 않다.

그들이 향한 곳은 LA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타 바바라 카운티.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해내는 와이너리가 많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특유의 온화한 기후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덕분에 이곳은 최적의 포도 재배지로 꼽힌다.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제친 기념비적인 블라인딩 테스트 '파리의 심판'이 있었던 1970년대, 산타 바바라에 처음 포도밭이 들어섰다. 그 후 산타 바바라는 '신세계'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지금



영화의 배경이 된 산타 바바라는 미국 와이너리의 10% 가량이 밀집한 곳이다.

까지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월요일, 주인공 일행이 처음으로 들른 곳은 ‘샌포드 와이너리’다. 산타 바바라 최초로 피노 누아를 재배한 곳으로, 샌포드의 피노 누아는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다. 샌포드에 들른다면 피노 누아 ‘Sanford & Benedict’를 시음해보자. 1971년에 심은 피노 누아 품종으로 담가 활기찬 산미와 농익은 타닌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맛을 자랑한다. 가격은 2011년산 한 병에 60달러로 조금 비싼 편. 화요일, 마일스와 잭은 ‘폭센 와이너리’에 방문한다. 테이스팅 중 점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몰래 한 잔씩 더 디캔팅해 마시는 잭과 마일스. 대개 와이너리 시음이 6~8잔 정도로 제한한다는 걸 모르지 않더라도 절로 웃음이 나는 장면이다. 폭센은 소량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작은 와이너리로, 드라이-팜(Dry-Farmed)이라는 자연 강수량만 이용한 재배 방법을 사용한다. 드라이한 맛이 일품인 소비뇽 블랑 ‘Vogelzang Vineyard’ 2012년산은 28달러에 즐길 수 있다.

같은 날, 잭과 마일스는 ‘칼리라 와이너리’를 방문한다. 피노 누아, 시라, 카베르네를 대표 와인으로 생산하는 다른 와이너리와 달리 모스카토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이다. 잭은 이곳에 근무하는 스테파니를 유혹하기 위해 모스카토가 아닌 카베르네를 무려 두 박스나 구매한다. 쓸데없이 돈을 지출하는 것 같아 마일스는 영 못마땅한 눈치다. 만약 잭이 구입한 와인이 ‘NV Rare Tawny Port’였다면 마일스의 생각도 달라졌을 것이다. 쿠바 시가와 잘 어울리는 이 와인은 연수를 따지지 않고 많은 이에게 사랑받기 때문이다. 1병에 30달러에 구입 가능하다.

그날 밤, 스테파니의 집에 초대된 잭과 마일스는 각자의 파트너와 시간을 갖는다. 스테파니의 친구 마야와 와인셀러를 살펴보던 마일스는 앤드류 머레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친다. “스테파니의 취향을 과소평가했군요. 앤드류 머레이! 그것도 좋죠.” ‘앤드류 머레이 빈야드’는 스탠더드에 충실

한 시라를 주로 생산하는 와이너리다. 이러한 앤드류 머레이의 정직함 덕분에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에게 15년 동안 꾸준히 호평을 받아왔다. 앤드류 머레이의 2012년산 시라 'Watch Hill Vineyard'는 1병에 30달러로, 바로 마시는 것보다 2년에서 10년 정도 보관해두었다가 마시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수요일, 커플 데이트를 즐기는 일행이 찾은 곳은 '파이어스톤 와이너리'다. 산타 바바라 최초의 포도밭을 일궜던 유서 깊은 와이너리로, 광활한 시설 덕에 결혼식, 피로연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다품종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와인 가격은 저렴한 편. 2012년산 소비뇽 블랑 'Firestone Vineyard' 1병이 20달러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된다.

목요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배알이 꼬일 대로 꼬인 마일스가 취중난동을 부린 곳은 '페스 파커 와이너리'다. 이곳에선 와이너리 오픈 25주년 기념 와인인 2013년산 'Sta. Rita Hills Pinot Noir Rose 25th Anniversary' 한정생산 제품이 1병에 24달러에 판매된다. 수박, 딸기, 생강, 바닐라 등 다채로운 풍미가 인상적인 와인이다. 스테파니와 마야와의 인연이 실패로 끝난 두 남자는 무료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마야가 상심한 마일스에게 전화를 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다. 마야의 전화를 받고 산타 바바라로 다시 떠나는 마일스. 영화는 바로 거기서 끝이 난다. 영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면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보자. 산타 바바라의 따스한 기후와 '골디럭스'한 와인이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지 모르는 일이다.



1
영화 속 모든 장면은
산타 바바라 카운티에서
촬영됐다.

2
파이어스톤 와이너리의
와인 기프트 세트



와인을 더 맛있게 즐기는 팁

와인, 알고 마시면 더욱 즐겁다

와인 전성시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와인은 ‘신의 물방울’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고급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급속한 대중화 바람을 타면서 이제는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와인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맛, 용도 그리고 즐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불편한 술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만 알아도 쉽게 와인을 즐길 수 있다.

TIP 1

와인의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와인 글라스

와인 글라스는 와인을 즐길 때 가장 필수가 되는 도구다. 와인의 향과 맛에 어울리는 글라스에 담아 즐길 때 그 와인의 최대치를 만끽할 수 있다. 레드 와인 글라스는 크게 보르도 글라스와 부르고뉴 글라스 두 종류로 나뉜다. 보르도 글라스는 레드 와인의 향과 맛 그리고 타닌을 돋보이게 해주는 만큼 대부분의 레드 와인은 이 글라스로 마시면 된다. 부르고뉴 글라스는 부르고뉴 와인과 같이 섬세하고 복잡한 향의 와인을 담아 마시면 와인의 다양한 향을 잘 느낄 수 있다. 화이트 와인은 온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레드 와인보다 작은 글라스에 자주 첨잔해 마시는 것이 좋다.



보르도 글라스
주로 보르도용으로 사용하는 대가 있는 툴립 모양의 유리잔.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져서 향이 많이 날아가지 않는다.



부르고뉴 글라스
대가 있는 입이 넓은 유리잔. 넓은 입은 와인의 최대 산화를 보장해 준다. 주로 버건디용으로 사용된다.



화이트 와인 글라스
좁고 곧게 뻗은 키 큰 유리잔. 종종 얼음이 나 물, 소다 등을 섞어 진과 같은 리큐어를 서빙하는 데 사용한다.

TIP 2

정확한 향과 맛 표현을 도와주는 와인 용어

타닌

포도의 껍질과 줄기, 씨앗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물질. 쓴 맛 혹은 수렴성이 있어서 떫은맛이 난다.

아로마와 부케

와인의 향은 아로마와 부케로 나뉜다. 아로마는 원산지에 따른 포도 본연의 향기를 뜻하며 부케는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2차 향기로 공기와 접촉하면 더욱 강해진다.

보디

맛의 농도 혹은 타닌과 알코올이 주는 질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다. 라이트, 미디엄, 풀로 구분된다. 순서대로 물, 우유, 미숫가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도심 운전도
아웃도어 라이프도
맥스크루즈라면 O.K.





시간이 날 때마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김주일
고객. 맥스크루즈 덕분에
더 멀리, 더 제대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다. 캠핑이 끝나고
도심의 일상으로 돌아와도
믿음직한 파트너,
맥스크루즈와의 동행은
계속된다. 도시에서도
자연에서도 믿고 함께할
최고의 동행이다.

 맥스크루즈 오너 김주일 고객



캠핑을 즐기는 김주일 고객에게 맥스크루즈의 넉넉한 적재공간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제대로 된 캠핑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김주일 고객의 아웃도어 라이프에 동행할 자격이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캠핑을 즐깁니다. 텐트와 요리 장비, 바비큐 세트, 침구와 편의 기구들을 챙기다 보면 짐이 만만치 않아요. 그때마다 ‘맥스크루즈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2, 3열 시트를 접으면 2박 3일 일정을 너끈히 소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다. 날씨의 변동이 만만치 않은 야외인 만큼 잘 준비하고 챙겨야 사서 고생을 피할 수 있다. 취재 중에도 맥스크루즈 곳곳에서 캠핑 장비와 야외용 의자를 꺼내며 마술 같은 공간 운용과 짐 싸기 실력을 선보이는 김주일 고객이다.

한편 아내 배정임 씨는 상대적으로 높은 맥스크루즈의 차고와 안전성을 만족 포인트로 꼽는다. “첫 차부터 SUV를 타다 보니 시야가 넓고 든든한 느낌을 주는 차들이 좋아요. 야간에 이동을 할 때에도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승차감에 믿음이 가서 장거리 여행에도 불안함이 없죠.”

최근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고자 하는 캠핑 인구가 늘면서 강원도와 경기 권역에 자동차 캠핑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승용차로는 무거운 짐을 싣고 고르지 않은 굽은 길을 헤쳐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고가 높고 ‘하체가 탄탄한’ 맥스크루즈는 이런 험로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부부의 든든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저는 차를 구매하면 일 년에 2만 킬로미터 이상은 주행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여기저기 많이 다니죠. 그래서 그런지 안전 면에서도 많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아버지도 차를 선택할 때, ‘내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운전석은 물론이고 조수석이나 동승석까지 꼼꼼하게 커버해주는 에어백이나 AEB(자동긴급제동시스템), BSD(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같은 기능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차로 맥스크루즈를 생각하는 고객들에게는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김주일 고객은 캠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즐긴다. 한 번 주행에 나서면 100킬로미터 이상 땀을 흠뻑 흘릴 때까지 맞바람을 즐기며 속도를 낸다. 한적한 도로를 주로 달리는데 안전을 확보하고 주행을 하는데도 경적을 울리며 위협 운전을 하는 차들을 볼 때면 운전자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경험해서 그런지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가능한 한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운전인데 화를 낼 필요가 없죠. 도심 운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차의 성능만 믿고, 자만심을 갖고 서두른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사고를 피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맥스크루즈를 즐겁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의 막바지에 현대자동차 SUV 오너로서 김주일 고객이 애정이 담긴 조언을 건넨다. 아웃도어 라이프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그에 발맞추어 SUV 차량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픽업트럭처럼 적재 공간이 넓은 차, 강력한 파워로 험한 도로나 급경사도 거뜬히 극복하는 차처럼 강력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고객의 취향에 응답하는 모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과 도전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분명히 현대자동차를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캠핑장 나무 그늘도 더 짙어진다. 넓은 그늘 아래 텐트를 치고 앉은 김주일 고객 부부의 이야기도 깊어져만 간다. 그 곁에서 언제든지 부름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맥스크루즈가 마치 한 가족인 듯 새삼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티켓교환처
H-Premium Family Seoul



H-Premium Family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더욱 새로워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품격 높은 예술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무비나이트와 프리미엄 공연 초청,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아웃도어 라이프를 체험하는 오토캠핑 & 글램핑과 캠핑 페스티벌,
골프 애호가 여러분을 위한 갤러리 참여 및 골프 투어까지.

고객 여러분이 최상의 만족과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더욱 새로워진 H-Premium Family 프로그램과 함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고객을 위한 남다른 정성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H-Premium Family 가족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H-Premium Family 선정 기준

블루멤버스 회원이며, 현대자동차를 4대 이상 구매하신 분들 중 현재 현대자동차 승용/RV 구매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신 고객
※ 상세 기준은 블루멤버스 홈페이지(BLUEmembers.hyundai.com) 참고

프로그램 소개

CULTURE

고즈넉한 밤의 정취와 함께 즐기는 명작의 향연

무비나이트

최고의 아티스트, 최고의 무대, 최고의 감동

프리미엄 초청공연

CAMPING

자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하여

오토캠핑/글램핑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골프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캠핑 페스티벌

GOLF & TOUR

최고의 필드에서 즐기는 호쾌한 스윙과 교류

골프 갤러리 참관 및 투어 프로그램

문의 및 예약



- 홈페이지 BLUEmembers.hyundai.com
블루멤버스 혜택 > H-Premium Family 선택
- 전용콜센터 1599-6015
운영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이벤트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밤의 정취와 함께 즐기는 명작의 향연 무비나이트

H-Premium Family 회원 여러분을 위해 전용 프리미엄관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한 밤, 품격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에서 명작이 선사하는 사랑과 추억, 감동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영관과 일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7~11월 넷째 주 목요일, 전국 CGV & 메가박스 9개 HPF 전용 프리미엄관 운영

지역	구분	상영관	상영 횟수	상영 시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더부티크 104	2회 (총 10회)	1회차 : 18:30 / 2회차 : 21:00
	CGV 압구정	템퍼시네마	2회 (총10회)	1회차 : 18:30 / 2회차 : 21:00
	CGV 영등포(타임 스퀘어)	골드클래스	2회 (총10회)	1회차 : 18:30 / 2회차 : 21:00
경기	메가박스 분당	더부티크 스위트룸	2회 (총10회)	1회차 : 18:30 / 2회차 : 21:00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더부티크 103	1회 (총5회)	1회차 : 19:00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	더부티크 104	2회 (총10회)	1회차 : 18:30 / 2회차 : 21:00
강원	CGV 춘천	프리미엄	1회 (총5회)	1회차 : 19:00
경상	CGV 부산센텀시티	템퍼시네마	2회 (총10회)	1회차 : 18:30 / 2회차 : 21:00
	CGV 울산삼산	골드클래스	2회 (총10회)	1회차 : 18:30 / 2회차 : 21:00

7월 ~ 11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 7월 20일 / 8월 24일 / 9월 21일 / 10월 26일 / 11월 23일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이벤트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아티스트, 최고의 무대, 최고의 감동 프리미엄 초청공연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H-Premium Family 회원 여러분을 위해 환상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열정적인 공연과 연주를 현장에서 직접 감상하며 몸과 마음에 새로운 설렘과 활력을 충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하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다. 2007년 첫 회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다 2012년부터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재즈는 어려운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자는 모토로 만들어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대중적인 재즈 뮤지션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으로 라인업을 구성해 국내 대표 음악 페스티벌로 성장해왔다. 특히 올해 공연은 다이안 리브스, 혼네, 스탠리 클락, 지코, 크러쉬, 존박 등 어느 때보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재즈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i

일정

2017년 5월 27일(토), 28일(일)

장소

올림픽 공원 일대 (88잔디마당,
핸드볼 경기장 등)



김건모 단독 콘서트

국민가수 김건모가 H-Premium Family 고객들만을 위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김건모는 최근 SBS <판타스틱 듀오> 등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독특한 매력을 어필하며 오랜 공백을 깨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골수팬은 물론 예능으로 김건모를 접한 20대 젊은 세대까지 팬층으로 흡수해 콘서트마다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재치 있는 입담과 더불어 유쾌한 댄스곡부터 풍부한 감성의 발라드에 이르는 수많은 명곡을 생생한 라이브 사운드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i

일정

2017년 8월 19일(토)

장소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디즈니 OST 콘서트

디즈니 명작의 감동을 다시 느끼는 마법 같은 시간이 올가을 펼쳐진다. 디즈니 OST 콘서트는 대형스크린을 수놓는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에 맞춰 오리지널 싱어가 유명 OST를 생생한 라이브로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알라딘,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등 이름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만드는 주옥같은 명곡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구, 연인, 온 가족이 함께 음악으로 디즈니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i

일정

2017년 9월 10일(일)

장소

올림픽 공원 88잔디마당

자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하여 오토캠핑/글램핑

캠핑을 위한 기본 장비가 갖춰진 전국 4곳의 오토캠핑 & 글램핑장에서는 텐트 설치와 철수 등의 번거로운 준비와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편안한 캠핑 & 글램핑을 즐기세요.



1

기간 6월 말 ~ 10월 말

장소 전국 4곳 캠핑 & 글램핑장

	캠핑/글램핑	운영 및 신청
오토캠핑	가평 파머스힐 캠핑장	매주(금/토/일)운영 1박 2일 -1사이트 or 2박 3일 -1사이트 신청 가능
글램핑	서산 한글도서관 글램핑 광양 느랭이골 글램핑 경주 남산 캠핑랜드	매주(토/일)운영 1박 2일-1사이트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이벤트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골프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캠핑 페스티벌

넓고 시원한 리조트 골프 필드에서 대규모 캠핑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캠핑 페스티벌의 진수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오크밸리 캠핑 페스티벌

1

기간 - 1차(1박 2일) : 7/12일(수)~ 7/13일(목) - 2차(2박 3일) : 7/14일(금)~7/16일(일)

장소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스키빌리지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이벤트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필드에서 즐기는 호쾌한 스윙과 교류 골프 갤러리 참관 및 투어 프로그램

국내 최고의 골프 코스에서 펼쳐지는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해비치 골프 투어에 H-Premium Family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골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고객초청



해비치 골프 투어

i

일시 9월 21(목)-24일(일)
장소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CC

i

일시 10월 20일(금)-22일(일)
장소 해비치 리조트 & 호텔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이벤트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재즈페스티벌, 흐르는 재즈에 몸을 맡기다

현대자동차 H-Premium Family는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서울재즈페스티벌에 고객들을 초청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88잔디마당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많은 재즈 애호가의 관심을 받았다. 혼네, 다이안 리브스, 타워 오브 파워, 자이언티, 크러쉬, 넬 등을 비롯한 국내외 최정상 뮤지션들이 무대를 빛냈다. 서울재즈페스티벌은 뮤지션들의 무대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어,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했다. 특별한 하루가 펼쳐질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쾌청한 날씨가 관객들을 맞이했다.



서울재즈페스티벌은 국내에서 그 명성이 높은 만큼 커플 티셔츠를 입고 경쾌하게 올림픽 공원을 누비는 연인부터, 아이와 함께 피크닉 매트를 펴고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가족 등 관객의 구성과 연령대도 다양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부스에서는 H-Premium Family 초청 고객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H-Premium Family 고객들만을 위해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을 즐기는 데 필요한 화사한 색감과 패턴의 피크닉 매트를 제공했다. H-Premium Family 고객들은 각자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받은 피크닉 매트에 앉아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 먹거나, 그늘 밑에 누워서 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서울재즈페스티벌을 관람한 고객은 “원래 뮤직 페스티벌을 좋아해서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데, 좋은 기회로 서울재즈페스티벌에 오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수준 높은 재즈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물론이고 최근 핫한 한국 가수들까지 함께한 이번 재즈 페스티벌은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예쁜 피크닉 매트를 선물해주셔서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대자동차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배려가 돋보였던 서울재즈페스티벌. 더욱 성장할 현대자동차와 서울재즈페스티벌의 내일이 기다려진다.



여행은 끝나도 길은 계속됩니다.
함께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기억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가 먼저 길을 열고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